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육일기 끌어내린 하버드 한인 학생들

하버드 보건대학 TH 찬 손자 운영식당 나이트마켓 왜 육일기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하버드 한인 학생들의 공개적 문제제기로 인해 하버드 스퀘어 한 레스토랑내 육일승천기가 마침내 제거됐다.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한 아시안 퓨전 식당 나이트마켓(Night Market)이 식당 내부에 그려져 있던 육일승천기를 제거했다고 4월 2일 밝혔다.

나이트마켓과 레스토랑 파스닙(Parsnip)의 총 지배인 팀 티옹슨(Tamy Tionson)은 4월 2일 육일기 관련 항의 메일을 보낸 하버드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그 예술작품(육일기)이 일부 손님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이것이 제거되었음을 알립니다” 고 적시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하버드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차미람씨(32)였다. 차씨는 동료 박사과정 학생들과 함께 나이트마켓으로 저녁을 먹고 계산하려는 차나 이 육일기를 목격하게 됐다. 모두들 당황했지만 “역사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해서 당시에는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 고 밝혔다.

하버드 한인학생회의 웹마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차미람씨는 조금더 이에 대해 공부한 후 육



하버드스퀘어 JFK 스트리트에 위치한 나이트마켓이 식당 내부에 그려져 있는 육일승천기를 제거했다. 식당측은 당초 한 학생의 문제제기를 무시했지만 하버드 학생들을 비롯 한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제거결정을 내렸다

일기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메일을 매니저에게 보냈다.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낼 것을 권장했다. 이날 함께 저녁을 먹었던 차씨의 동료는 ‘육일기’ 라는 닉네임으로 보스톤 코리아 알림마당에 “하버드 스퀘어에서 이런

일이” 이란 글을 올려 한인들의 참여를 권장했다. 이 동료는 2017년 엘프닷컴에 남겨진 뉴욕 출신 한한인의 후기를 첨부했다. 이 후기에 따르면 이 육일기는 2017년에 이미 >>2면으로 계속

베벌리 한인 커플 성매매 혐의 기소

매사추세츠 대배심 고등법원에 기소
인신매매, 자금세탁, 신분사기 등 여러 혐의
보스톤총영사관 사건 인지, 주정부와 협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동북쪽에 위치한 베벌리(Beverly, MA) 거주 한인 커플이 인신매매, 윤락행위 등의 혐의로 매사추세츠 대배심(Statewide Grand Jury)에 의해 3월 28일 기소됐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의 29일 발표에 따르면 H 씨(29)와 N 씨(29) 커플은 샐럼 주택가에서 윤락행위를 하는 조직적 범죄 사업체를 운영했다. 두사람 중 1인은 한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윤락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만남의 약속을 정했다. 이들은 보스톤의 사우스스테이션 또는 뉴욕의 플러싱에서 여성을 이동시켰으며 성매매를 통한 대부분의 수익을 자신들이 챙겼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위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고 가격에 원진 한국
4/12 보스톤-인천 직항 취항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
\$1,199~

NEW 2019
고국관광
개키지
예약가능!

617.424.8956
IACE TRAVEL

News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하버드스퀘어 식당 욱일기 끌어내린 하버드 한인 학생들

▶▶1면에 이어서
존재했으며 이곳을 찾지 않았던 한인 학생들의 눈에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 스퀘어 JFK 스트리트에 위치한 나이트마켓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은 애시 찬(Ash Chan)이 소유한 식당이다. 애시 찬은 홍콩계 미국인으로 하버드 스퀘어의 상당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제럴드 찬의 아들. 보스턴에서 태어나 UCLA를 졸업했다. 제럴드 찬은 수년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이름에 아버지 TH 찬의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350million을 기부했던 억만장자. 제럴드의 동생 역시 홍콩의 부동산 재벌이다.

나이트마켓의 셰프 제이슨 탐(Jason Tom) 역시 중국계 미국인으로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다. 메인의 콜비칼리지를 졸업하고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요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레스토랑 셰프에 도전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소유주 및 셰프 등이 모두 중국계인 것을 감안하면 나이트마켓이 일본 제국주의의 욱일승천기를 달고 있는 것은 의외다. 이 깃발이 나치의 상징인 스와스티카(Swastika)와 같은 침략주의를 표방하는 것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위)아시안 퓨전 식당 나이트마켓(Night Market)이 식당 내부에 그려져 있던 욱일승천기 (아래)2017년 열프닷컴에 남겨진 뉴욕 출신 한인의 후기

보스톤코리아는 나이트마켓을 25일 직접 방문하고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26일 전화통화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명이나 답장은 받지 못한 상태.
editor@bostonkorea.com



2018년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시 전달된 뉴잉글랜드 장학생 시상식

서울대학교 NE 동창회 2019년도 장학생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윤은상)는 올해도 지역 한인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을 선발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대학교에 진학할 뉴잉글랜드 지역 12학년생, 뉴잉글랜드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학교 성적, 추천서, 그리고 재정상태도 고려된다. 유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추천서는 타 기관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탈락되므로 반드시 수신인이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로 작성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우수한 한인 1.5세/2세대들이 많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snu-aane>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5월 25일이다.

장학금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snuane@gmail.com, 또는 장학위원장 youngchunglee@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 한미노인회가 4월 3일 북부보스톤교회에서 개최한 사랑방모임에 신임 장우석 한인회장이 임원진들과 함께 방문했다. 장우석 한인회장 당선후 첫번째 방문 행사로 기록됐다

노인회 사랑방모임 신임 한인회장단 방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보스톤한미노인회는 4월 첫째주 사랑방모임을 앤더버 소재 북부보스톤감리교회로 장소를 옮겨 개최했다. 평소 사랑방 모임 장소이던 노스앤더버 다문화 교회 미국 측 교회에서 행사 일정으로 인해 장소를 옮겨 개최된 사랑방 모임에는 약 70명의 노인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모임은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한미노인회 친교부, 도정희 회원, 한인회가 합동으로 점심을 준비했다.

특히 이날 사랑방모임에는 장우석 한인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함께 방문했다. 장우석 회장은 “40대 한인회가 처음으로 방문한 단체가 한미노인회”라고 말하고 “미국사회 한인 노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사랑방 모임이 흥겹고 즐거우셔서 좋고 저희들에게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 늘 건강하고 즐거우세요”라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또한 노인회 윤철호 회장을 비

롯한 임원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했다. 한미노인회 회원들도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노인들은 다시 시작하는 한인회라 힘들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한인회를 응원 한다며 장우석회장의 등을 토닥거리 주기도 했다. 윤철호 노인회장은 “오늘방문해 주신 한인회 장우석회장과 임원진들에게 점심으로 감사 한다”고 답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플루 막판까지, 주내 4번째 사망자 발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플루는 막판까지 발톱을 감추지 않고 있다. 주 보건부는 2일 플루관련 주내 4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미들섹스카운티에 거주하는 틴에이지 남학생이 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올해초 프레밍햄 거주 4세 여아와 밀포드 거주 중학생 아론 재너스가 모두 플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또한 2월 4세의 로웰 거주 아시아어메리칸 여아가 세번째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명의 틴에이지가 플루로 사망했으며 총 4명의 사망자 중 3명이 미들섹스카운티 거주자였다.

현재 플루관련 환자 및 입원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주 보건부 감염과 래리 매도프 박사는 “현재 데이터를 볼 때 피크 플루시즌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며 “최근 플루관련 사망자의 발생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들이 플루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새삼 강조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미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매해 약 1만2천명에서 5만6천명 가량이 플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통계를 매사추세츠에 적용시 해마다 약 250에서 1천 100여명이 플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 시즌 미국내에서는 총 185명의 어린이가 플루로 사망했다.

보건부는 올해 플루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만연하고 여전히 위험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플루백신을 접종하고 손을 자주 씻을 것을 권했다.

hsb@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3/16 - 5/25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7/8 - 7/26	7/8 - 7/29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8/5 - 8/23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백악관 인턴 지원하세요"

지원마감 오는 5월3일, 경쟁치열 철저한 준비 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9 추계 백악관 인턴십 프로그램(The Fall 2019 White House Internship) 지원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지원 마감은 동부시간 기준 5월 3일이다. 지원전용 웹사이트는 3일 11시 59분까지 오픈되며 웹사이트 주소는 <https://apply.whitehouse.gov/intern/>이다.

이번 추계 인턴프로그램은 9월 4일

-12월 6일 3개월간 운영된다. 지원자격은 인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일자 까지 최소 18세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어진 인턴십 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어야 한다. 미국시민만 지원이 가능하며 학부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2년제-4년제), 인턴 시작일 기준으로 대학(2년제-4년제)/대학원 졸업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백악관 인턴십프로그램은 경쟁이 치열하며 지원자들의 공공서비스에

헌신, 커뮤니티 리더십 발휘, 트럼프 행정부 임무 완수 의지 등을 기반으로 선정되므로 신청서는 이 같은 내용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내년(2020) 봄 백악관 인턴십 지원은 7월 1일 시작해 8월 23일 마감이며, 여름 인턴십 지원은 11월 18일 시작해 1월 10일 마감한다.

이메일 문의 : intern_application@who.eop.gov
bostonkorean@hotmail.com



2019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스톤 공동채용설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해외 공동채용설명회를 4월 15일 월요일 케임브리지소재 르메르디언케임브리리지보스톤호텔 (Le Meridien Cambridge Boston Hotel)에서 개최한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취득 예정자, 박사후과정(Post doc)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채용설명회는 채용설명회(13시~17시), 홍보

발표회(14시~15시)로 진행된다. 이번 채용설명회 사전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채용정보서비스(<https://recruit.nst.re.kr>)에서 방명카드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한후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관련 문의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팀 이미라씨(gri_recruiti-ng@nst.re.kr)에게 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시민협회 정치인턴 모금 만찬 6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잉글랜드한인미국시민협회(회장 이경해, 이하 시민협회)가 차세대 정치인턴 지원을 위한 장학금모금 만찬을 렉싱턴에 위치한 엘크스 클럽 (Elks Club)에서 4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개최된다.

올해 정치인턴 만찬에서는 한인들에게 익숙한 샘윤 KAA(Korean Americans in Action) 사무총장이 자전 보스톤시의원이 기조연설을 전달한다.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시민협회

정치인턴장학생 모금 만찬의 참가비는 지난해 기준 일반인이 \$60이며 학생 및 시니어의 경우는 \$30이었다. 올해 참가비 또한 아직 미정이다. 이 행사에 대한 문의는 이경해 회장(508-962-2689), 혹은 김성군 이사장(617-799-7033)에게 할 수 있다.

일시: 토요일, 4/6/19, 6시
장소: Lexington Elks Club, 959 Waltham St, Lexington, MA, 781-862-9759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BEST DEAL

\$60 상당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홍삼톤 골드, 홍천웅 구입시
홍삼톤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포드 익스프레스로 주문 후 다음날 밤까지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중고교 학교내 전자담배 흡연 만연

베이커 주지사, 청소년 전자담배와 전쟁 선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중고등학교내 만연한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베이커 주정부가 강력한 전자담배 규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고교생 41%가 전자담배를 최소 한 번 이상 흡입했으며 20%가 지난 한달 사이 전자 담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율은 성인에 비해 6배나 높다. 심지어 중학생의 10%도 최소 한 번 이상 전자담배를 이용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 전자담배 회사 줄(JUUL)을 공개 조사하고 있는 MA 주 모라 힐리 검찰 총장은 학생들이 화장실을 “줄

리운지(JUUL Lounge)”라 부른다는 것을 한 학군 교육감으로부터 들었다며 이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매사추세츠 의회는 주 전역의 담배 구입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였다.

이와 더불어 담배 가격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다. 주정부는 1월 각종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에 40%의 물류세를 부과하고 전자담배에는 13.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매사추세츠 보건 후생부 마틸루 서더 장관은 “전자담배는 공중보건의 위기다. 특히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

소년들은 추후 담배를 이용할 확률이 4배가 높다”고 강조하고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공중보건부 모니카 바렐 장관은 “기존 담배회사들이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도록 과거 담배와 같은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다”며 “담배와 마찬가지로 해롭고 중독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다른 제품 같은 위험”이란 구호로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금지 캠페인을 벌여가고 있다. 전자담배는 약 8,000여 맛으로 판매하며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게 달콤하게 만들어졌다. 또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베벌리 한인 커플 성매매 혐의 기소

▶▶1면에 이어서

한인신매매, 윤락이윤창출, 성노예 행위 공모, 주택내 윤락행위, 주택 오용, 신분사기, 그리고 2건의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대배심은 이번 사건을 주 고등법원에 기소함에 따라 추후 에섹스고등법원 (Essex Superior Court)에 기소될 예정이다.

주경찰은 2월 13일 이들을 체포해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샐럼 지방에 기소돼 5만불의 보석이 책정됐다. 보석금을 납부한 경우 가택 연금되며 피해자 접촉이 금지된다.

한국과 미국은 국민들이 체포가 됐을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교공관에 통보하는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을 맺고 있어 이와 같은 사건 발생시에 자동적으로 외교공관에 통보되지 않는다. 주 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보스톤총영사관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총영사관측은 지속적으로 사건관련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보스톤총영사관의 고성만 영사는 “영사관에서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매사추세츠 검찰청 및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검찰청 에밀리 게인리 대변인은 “피해자들의 국적과 신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혐의를 받고 있는 H씨는 로드아일랜드를 비롯 뉴튼에 네일 가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을 벌여왔었다.

일각에서는 H씨의 이름이 흔치 않은 것을 두고 중국 조선족 출신의 한인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출신 한인들은 현재 로드아일랜드와 보스톤을 중심으로 매사추세츠에 약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회는 향후 조선족 출신 한인들에 대한 연결 창구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해 동부 지역 한인 성매매 조직 검거에 더해 올해 초에도 한인들이 같은 혐의로 검거되는 등 성매매 관련 사건이 빈발해지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2세같지 않은 2세들의 한글실력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내 작문대회 생각과 꿈을 지면에 활짝 펼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30일 교내 작문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와 생각 등을 한글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한글 실력을 발휘했다. 기초 부문 심사를 맡은 한 교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글쓰기가 아직 서투른 학생들도 또박또박 최선을 다해 열심히 써 보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 정말

감동이었다.” 밝혔다. 고급부문의 심사를 맡은 한 교사는 “한인 2세라고 절대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한글 수준이어서 정말 놀라웠고 2세들의 생각도 아주 깊었다.” 며 놀라워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나의 어머니(아버지)가 이해될 때’,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의 먹방’ 등 난이도 있는 다양한 주제가 주어졌음에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전개했다고 남일 교장은 전했다. 심사 교사들은 이들의 글에 공감하는 게

많았다는 것이다.

남 교장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 며 작문대회 참가자 글을 모은 ‘2세들의 마음을 모아!’ 문집도 곧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는 이번 대회 수상자 명단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다음 행사로 5월 4일 학부모회 주최로 봄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가을 학기 등록문의 및 교사지원은 홈페이지(www.ksneusa.org) 또는 남일 교장(508-523-5389,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3월 30일 뉴튼의 엘리엇 교회에서 개최된 음악회 '믹싱업'에서 피아니스트 한쿠스 네츠키 교수(왼쪽)와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씨가 함께 연주하고 있다

“가야금이 재즈 피아노를 만났을 때”

유대 음악과 한국 음악 그리고 재즈의 멋진 조화
김도연과 한쿠스 네츠키 음악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유대음악과 재즈의 결합으로 인정 받고있는 피아니스트 한쿠스 네츠키 교수(뉴잉글랜드 음악원)와 가야금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장르와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젊은 한인 연주자 김도연씨의 음악회 'Mixin' it Up'이 3월 30일(토) 오후, 뉴튼에 위치한 엘리엇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네츠키 교수의 설명과 함께 진행된 음악회는 그의 즉흥곡인 New Shiftatelli와 텔로니어스 명크의 곡인 Round Midnite로 시작되었다. 재즈 피아노로 펼쳐지는 하모니와 리듬 위에 가야금의 짙은 농현이 어우러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앙상블이 펼쳐졌으며 청중들은 흔하게 들을 수 없는 신선한 소리의 조합에 귀를 기울였다.

김도연씨는 솔로 연주였던 즉흥곡에서 가야금 테크닉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한국적인 감성과 서양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껴지는 연주를 통해 음악가로 깊이 있게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통 멜로디인 Ma Yelidus, 실연당한 젊은이의 슬픈 사연을 담은 유대식 탱고 Give Me Back My

Heart 등을 포함한 몇 곡의 유대 음악이 연주된 후, 네츠키 교수는 김도연의 장구 반주에 맞추어 아코디언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을 연주하였는데 파리나 태평소 등 날카로운 소리의 관악기 음색을 내기 위해 소장하고 있는 아코디언 중 가장 거칠고 찌르는 듯한 음색의 악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 무대에서 아프리카 풍의 신나는 리듬이 살아있는 랜디 웨스턴의 곡 Little Niles로 흥겨움을 전한 김도연과 한쿠스 네츠키는 관중들의 끊임없는 박수에 앙코르 곡 Just You Just Me를 들려주며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제목처럼 다양한 문화와 음악적 요소의 혼합과 멋진 조화를 보여준 이 음악회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주최하였으며, 유대인과 한국인 청중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음악회가 매우 즐거운 분위기였고 특별한 조합의 소리가 효과적이었다고 평했다. 한인 김남희씨는 “새롭고 흥미로운 음악이었으며 서양의 현대곡을 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한국적인 음(音)을 들을 수 있어서 감동스러웠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내 작문대회 수상자 명단

참가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대상 수상작 제목
기초-2 특강1부문	조우진(거북이반)	안수민 윤다나	윤하나 이선유	차예린	봄
기초-3 특강2부문	한유주(금도기) 신혜원(은도기)	홍진서 김이안	민향기 김이준 김수현	윤정연 김재인	내생일
기초-4 특강3부문	한수현(홍부반)	손희수 허이레 임필립	안현기 이아윤	오미셀 조민수 김도연 한지나	우리 가족
초급-1부문	오재인(신라2반)	박단비 박재희 류지완 김유빈	엄지우 안효기 나연재	김윤재 황수현 백채연 이다인 주사랑	여름방학
초급-2부문	오유진(백제반)	배지원 이가빈	김주현 강다예 유리스턴즈	신재환 김다인 박준영 남윤우	키우고 싶은 애완동물
초급-3부문	최진현(고구려반)	기예린	정민아	배지훈 한미현 이노아 이노엘 나예준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중급-1부문	이준호(고려반)	이지윤 정다인	이영걸 정필립	박혜린	내가 아끼는 물건
중급-2부문	서예린(조선반)	김 준	김예린	남소은	내가 키우고 싶은 반려동물
중급-3부문	이혜린(한국반)	최서경	최유나 최유진	서혜원 노 진	나에게 단 한가지의 초능력이 생긴다면?
고급-1부문	김수지(금강반)	정동현	이재서 조한희	허선희 송 윤	나의 아버지가 이해될 때
고급-2부문	이유나(한라반)	서가은	이예은	이재훈	세계 속의 한국
고급-3부문	허은빈(백두반)	이유진	김준영		미국에서 보는 한국의 먹방

각 부문 대상글과 수상자 명단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매스 커넥터 건강보험 사상최대 가입 한인 가입자는 되려 지난해보다 줄어

한인 가입자 올해 들어 500여명 대폭 감소
커넥터케어 수혜대상 한인들 대거 이탈
커넥터케어 가입자 282,000명 13년 최고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케어의 매사추세츠 버전인 커넥터케어(ConnectorCare) 가입자가 282,000명으로 13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한인 가입자는 지난해 비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8년 헬스커넥터 보험을 이용한 한인들은 총 1895명이었지만 지난 1월 23일 마감된 2019년 헬스커넥터 보

험 가입자는 1411명으로 약 500여명(25%) 감소했다. 또한 올해 가입자 중 51명은 단지 덴탈 보험만 가입한 상태다.

특히 오바마케어는 보험가입의 의무 조항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일부 건강 강한 한인들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여전히 의무조항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시 최대 1천불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연방빈곤선 300% 이상의 소득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는 벌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벌금을 떠나 병원비로 인한 개인 파산이 가장 많은 미국인 것을 고려했을 때 커넥터케어 가입은 중저소득층 한인들의 경우 거의 필수적이므로 그 수는 많지 않다. 실제 2018년 가입자 중 세금크레딧만 받거나 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커넥터케어 가입자 수는 585명이었으나 지난 12월까지 47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이었다.

결국 400여명의 한인들이 2019년 들어 감소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제이슨 레퍼즈 헬스커넥터 대변인은 “커넥터케어 공개등록에서 특정 민족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은 까닭” 이라고 이메일 답변에서 추정했다.

그렇지만 2019년 공개등록 이전에도 가입시 해당 민족을 표시하는 것은 항상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 갑자기 많은 한인들이 표기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

도 있다.

결국 나머지 건강보험 이탈 한인들은 직장을 잡아 직장보험을 가입했거나 아니면 타주로 이주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커넥터케어(ConnectorCare)는 실버보험플랜으로 4인가족 기준 연소득 \$75,300(연방빈곤선 300%이하)의 중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버보험플랜은 디덕터블이 없으며 코페이먼트와 코인슈어런스 의사진료비 등이 아주 저렴하거나 거의 없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중 가장 필수적인 커버리지 옵션을 만족하는 플랜만 인정하며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가지 플랜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커넥터케어 건강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연방정부 오바마케어의 세금크레딧에 덧붙여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세금크레딧이 더 보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사추세츠 커넥터케어 건강보험은 미국내 최고라 할 수 있다.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400%이하(4인가족 기준 \$100,400)인 경우도 연방정부의 텍스크레딧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텍스크레딧 정도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료는 커넥터케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연소득이 그 이상인 경우 텍스크레딧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플랜 구입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MA Health Connector)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총 매사추세츠 한인수는 1895명이었다. 이 중 1310명은 커넥터케어를 이용했으며 143명은 텍스크레딧을 받았다. 하지만 전혀 정부보조를 받지 않고 헬스커넥터를 이용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한인들은 442명에 달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o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폐허가 공원이 되기까지 11년

보스톤 프로젝트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엘머스트 공원(Elmhurst Park)은 푸른 잔디밭과 알록달록한 벽화, 세련된 조형물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어우러진 근사한 공간이었다. 싸늘한 날씨에도 사람들의 발자취와 애정어린 손길이 느껴질 만큼 온기가 어려웠다.

“맨 처음 이곳은 쓰레기가 가득한 버려진 장소였어요” 보스톤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디렉터 파울라 무니 맥코이(Paulea Mooney-McCoy)는 공원을 보여주며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섬머 캠프를 비롯한 각종 지역이벤트가 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모퉁이에 또 다른 공원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곳을 평화의 정원(Garden of Peace)이라고 부릅니다. 공원의 벤치 두 개는 이 지역 아이들이 디자인한 것이고요.” 십자가가 벌린 팔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모양으로 디자인된 벤치 아래에는 ‘수고하고 집진 자들아 다내

게로 오라’ 라는 성경 말씀이 적혀있었다. 파울라는 “공원이 완성되고 한 동안 아침마다 어떤 나이트 남자분이 바로 저 자리에 앉아계셨는데 편안해 보였습니다” 라며 웃었다.

한 블록쯤 지나자 공사 중인 커뮤니티 가든이 모습을 드러냈다. “채소를 심고 가꾸면서 사람들끼리 교제도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주택가 골목을 돌며 마주한 벽 곳곳에는 화사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정원과 예술로 아름답게 가꾸어진 마을, 이는 보스톤 프로젝트의 지난 23년간의 발자취이다.

보스톤 프로젝트는 도체스터를 기반으로 이웃 지역을 더 푸르고 건강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들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1996년 고든 멀키를 막 졸업한 폴 말킴(Paul Malkemes)과 그의 아내 글레나 말킴(Glenna Malkemes)이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체스터

에 자리를 잡은 것이 그 시작이다.

“맨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열정을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폴 말킴이 말했다. “처음에는 청년사역에 비중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청년사역이 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이고 관계에는 아젠다가 없습니다.”

보스톤 프로젝트 사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준 사업은 다름아닌 엘머스트 공원이다. 본래 폐허였던 버려진 땅이 공원이 된 것은 한 아이의 사고로부터 비롯되었다. “위험한 쓰레기로 가득한 공터에서 아이들은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아이가 버려진 깨진 유리 창에 다리를 온통 찔렸고, 그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비전을 세운 것은 1998년,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09년에 비로소 공원이 완공되었다. 건축비용을 계산하고, 작가와 연락하고, 지역민들이 이 공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과정은 길었다. 그 사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도 찾아왔다. 공원이 지어지고 난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고민이었다. 초반에 공원을 넘겨받는 것을 보류하던 보스톤시는 보스톤 프로젝트



(위) 평화의 정원(Garden of Peace)의 벤치는 지역 아이들이 디자인한 것이다 (아래)한때 폐허였던 엘머스트 공원의 현재 모습

가 공원 디자인과 건축, 3년간 관리를 한 후 넘겨주겠다고 하자 겨우 동의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되었지만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보스톤 프로젝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공원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을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각종 이벤트는 공원이 생기기 전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다. “폐허를 청소한 후에 생겨난 공터에서 패밀리 펀 나이트(Family Fun Night)나 각종 운동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그것이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전을 살아있게 한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폴은 말했다.

다. 엘머스트 공원이 생기고 두 번째 공원이 만들어지기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엘머스트 공원은 우리 단체의 상징과도 같아요. 사람들을 한곳에 모으고 변화를 만들고, 비전을 살아있게 합니다” 라고 파울라는 말했다.

보스톤 프로젝트는 조만간 “Loving your block”, “Let’s get healthy” “Family Fun Night” 등의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단체의 홈페이지 (tbpm.org)나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사진에서 오른쪽: 파울라 무니 맥코이(Paulea Mooney-McCoy), 왼쪽: 폴 말킴(Paul Malkemes)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 지상파 / 케이블 \$24.99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벵쿠TV / 이밴트TV / KTV / 우리방송

건강보험 있어도 고액 병원비용 폭탄

보험사 네트워크 밖 의사 진료 의료비 환자에게 병원측 사전공지 안해, 보험사도 부담 거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도 갑작스런 의료비용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임신부는 출산을 위해 사우스쇼어(South Shore) 병원을 찾았고 일반적인 진통제를 요청해 마취과 의사가 이를 시술했다.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 온 며칠 후 의사그룹으로부터 \$2143.44의 청구서가 날라 들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에머슨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던 또 다른 환자는 엑스레이를 읽었던 의사의 비용 \$300.91이 청구됐다.

두환자 모두 이 같은 병원비용이 청구된 것에 어안이 병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보험을 받는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지 의료비용 청구의 원인인 두 의사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네트워크 밖의 의사로 자신들의 진료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의사그룹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보험 밖 의사들을 병원들이 고용해 과다한 의료비용청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비단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스톤글로벌은 지적했다. 당연히 분노한 환자들은 병원측이나 건강보험사와 다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스톤글로벌이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총 115명의 환자들이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갑작스런 의료비용에 관한 불만을 접수했다. 이 같은 불만 접수의 35%가 네트워크외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였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 의사 진료비용보다 200%가량 비싸다.

병원들이 자신들이 계약한 건강보험사들이 커버하지 않는 의사들이 병원 내에서 진료하게 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다. 특히 네트워크 밖 의사들은 대장내시경을 보조하는 마취과 의사들, 응급실 정형외과 및 심장과 의사들 그리고 방사선과 및 병리과 의사 등이지만 환자들이 의사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눈부상을 입은 한 남성이 뉴튼웰슬리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밖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 무려 \$7%의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다행히 병원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명적인 감염병을 앓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에 침상이 없는 관계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밖의 응급차를 이용한 관계로 \$2,079.08의 의료청구서를 받게 됐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수백불의 의료비용이었지만 약 10여명이 넘는 환자들은 수천불이었다. 최고 네트워크 밖 비용청구는 케임브리지 헬

스얼라이언스에서의 실험실 테스트 비용으로 \$4,600이었다.

사우스쇼어나 에머슨 병원의 경우 이 같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의료비용청구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과의 응급실 의사를 고용한 그룹들도 환자들 및 보험사와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부과한 의사협회들은 환자들이 지불을 거부하자 이를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겨 대처하고 있다.

특히 병원측과 건강보험 회사들은 환자들의 거둔 전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료비용청구에 대해서 때로는 답변을 못하거나 때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환자는 무려 20번이나 전화를 했다. 많은 환자들은 전화를 해도 거의 대부분 응답을 듣지 못했다.

주의 건강보험 비용을 감독하는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정책위원회(Health Policy Commission)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1년동안 약 1만명의 매사추세츠 환자들이 소위 “네트워크 밖 진료”를 이유로 갑작스런 의료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의사들을 보유한 지역 건강보험사 블루크로스블루실드(BCBS)와 텡스헬스플랜(THP)만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에트나(Aetna), 시그나(Cigna),



그리고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 등 대형 미 전국적 건강보험사들처럼 대부분의 병원들과 계약했지만 각지역의 의사그룹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높은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에트나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의사그룹들이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그룹에게 공을 넘겼다. 또한 의사들이 네트워크 밖 의사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병원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규모 네트워크 회사들은 오히려 전국적인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신들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매사추세츠는 소비자 보호법이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매사추세츠의 약 60%에 달하는 상업적 건강보험회사들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규

제를 받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며 빠른 주법 제정을 권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하자 점차 많은 주들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진료비용 청구비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과다 의료비용 청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뉴욕과 케네터켓은 이 같은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만 매사추세츠는 네트워크 밖 의료비용 요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주요 의회지도자들은 올해는 이 법안 통과가 최우선임을 밝히고 있으며 미 연방 상원에서 이 같은 이슈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사그룹, 건강보험사,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 모두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의사가 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의사임을 사전에 고지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적절하게 조율된 금액의 네트워크 밖 의사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2019 전국 수학 경시대회

주최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Korean-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재미 한인 과학 기술자 협회가 전국 수학경시대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석과 후원을 바랍니다.



공동 주최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



날짜 : 2019년 4월 13일 (토), 오후 1-4시

온라인 등록 및 정보 :
<http://ksea.org/NMSC/>

장소 :
St. John's United Methodist Church
(성요한 교회)
2600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1

참가비 : Online - \$25, On-site - \$30

재미 과기협 NE 지부 : <http://www.kseane.org>

온라인 등록 기간 : 2019년 2월 4일 - 4월 7일



1회용 비닐 봉지 금지 법안 추진 중

빠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수도 비닐 봉지 대신 종이 봉투 구입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1회용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미 매사추세츠 주의 일부 타운이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비닐 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곳이 있지만 주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매사추세츠 주 전체에 적용된다.

비닐 봉지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8월 1일부터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비닐 봉지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대신에 손님이 원할 경우 비닐 봉지가 아닌 종이 봉지를 10센트에 구입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쇼핑용 가방을 구입해야 한다.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의회 산하 환경부, 천연자원부, 농림부 등이 공청회에 참여한다.

비닐 봉지는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주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사용되는 비닐 봉지의 약 5%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으로 비닐 봉지 사용을 제한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16년에 승인되었다.

뉴욕 주에서는 최근 예산 협상 과정에서 비닐 봉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뉴욕에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비닐 봉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5센트를 지불하고 종이 봉지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다.

미국 북동 지역에 위치한 주에서 최근 비닐 봉지를 추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버몬트 상원은 지난 주에 1회용 비닐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커네티컷, 메인,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등에서 비슷한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jsi@bostonkorea.com



비닐 봉지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8월 1일부터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비닐 봉지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매사추세츠 전체 다리 중 91%가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MA주 다리 500여개 구조적 결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다리 중 4,768개가 보수 공사가 필요하며, 약 500개 다리는 가장 심각한 수준인 “구조적 결함이 있는 (structurally deficient)” 다리로 분류되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민간단체인 미국 도로와 교통 건축가 연합에서는 지난 1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16번째로 다리 상태가 안 좋았다. 매사추세츠 주의 다리

중 9%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며, 전체 다리 중 91%가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다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약 95억 달러로 예상했다.

미국 전체 평균을 보면 약 7.5%의 다리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리로 분류되었다. 로드 아일랜드는 23%의 다리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리의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주로 꼽혔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직원 모집

LSG Sky Chefs 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LSG Sky Chefs는 Lufthansa AG의 자회사로 기내식 및 기내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본 회사에서는 **Asian cuisine** 특히 **스시와 한국음식에 경험이 있는 주방장과 요리사를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어야 하며 영어로 읽기와 대화가 가능 하여야 합니다.

채용되시는 분은 Full time, permanent position with full benefits과 free parking의 혜택을 받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영문 이력서를 **BOS1379.HR@lsgskycheffs.com**으로 보내주세요.

브루클라인서 전기 스쿠터 렌탈 시작

매사추세츠 주에서 처음으로 실시 시행 첫날부터 이용자 다치는 사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과 맞닿아 있는 타운인 브루클라인에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처음으로 전기 스쿠터 렌탈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4월 1일부터 브루클라인에서는 손쉽게 전기 스쿠터를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브루클라인에서는 7개월 반 동안 한 시적으로 전기 스쿠터 렌탈을 허용하였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드(Bird)와 라임(Lime), 두 전기 스쿠터 회사가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타운 관계자들과 스쿠터 회사의 기대와는 달리 브루클라인의 전기 스쿠터 렌탈 프로그램 첫날부터 사고가 발생했

다. 타운 자문위 소속의 62세 킴 스미스는 전기 스쿠터 런칭 행사에서 라임 스쿠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스미스는 이마에 상처를 입고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다. 50여 명의 브루클라인 주민들이 런칭 행사에 참여하여 전기 스쿠터를 사용했으며 부상자는 스미스 1명이었다.

전기 스쿠터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1달러, 그리고 이용 시간에 따라 분당 15센트가 부과된다. 현재 2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기 스쿠터 회사는 차후에 필요할 경우 전기 스쿠터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기 스쿠터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 18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야 한다. 현재 렌탈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전기 스쿠터의 최대 속력은 시간당 15마일이다.

아직 전기 스쿠터 렌탈 프로그램을 허용한 곳은 브루클라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전기 스쿠터를 타고 브루클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가령 브루클라인에서 전기 스쿠터를 타기 시작해서 보스톤에 갈 경우, 보스톤에 전기 스쿠터를 세워 놓을 수 는 있지만 다시 전기 스쿠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

버드와 라임에서는 전기 스쿠터에 달려 있는 GPS 추적 장치를 통해 브루클라인 밖에 세워져 있는 전기 스쿠터는 2시간 안에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전기 스쿠터는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위해 1달러, 그리고 이용 시간에 따라 분당 15센트가 부과된다



한인 2세 변호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상대 1억8천만달러 민사소송 승소

미국법원 "SK 하이닉스, MS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시카고=헤럴드경제) =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3월 27일 미국 시애틀 연방 법원 및 배심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SK 하이닉스에서 물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억8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책임 없음 (피고 전액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그의 보험사인 사이프러스는 SK 하이닉스가 게임기 엑스박스원(Xbox One)에 들어가는 DRAM 칩 공급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1억 8천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3년여에 걸쳐 법정다툼이 이어졌다.

SK 하이닉스는 화재로 인해 약 6천만대의 DRAM 칩을 공급하지 못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DRAM 칩을 공급했으므로 그들이

가진 의무를 다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주역이 한인 2세 변호사들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미국 법무법인 버드 머렐라(Bird Marella)의 노익환 변호사와 유티모시 변호사가 그 주인공. 노익환 변호사는 "담당판사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드물다고 명시할 정도로 큰 사건을 미국계 한국인 변호사팀이 승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티모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한국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미국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많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전문가로 미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리더로 꼽힌다.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톤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톤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분만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미 병원

2012년 여름부터 최소 11개월 이상 몰래 촬영 기본적인 사생활 침해...병원 "절도범 잡으려고"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병원이 분만대기실과 분만실에 있는 환자 1800명을 몰래 카메라로 동의 없이 촬영해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CNN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카운티 라메사에 있는 샤프 그로스몬트 병원은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최소 11개월 이상 병원 내 여성 센터의 대기실 및 분만실 3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술대 위에서 가운으로 몸을 반만 가리고 누운 환자나 제왕절개 수술 및 전후 장면, 태어난 아기 모습 등이 찍혔고 영상 속 피해 환자의 생식기나 얼굴 등도 알아볼 정도였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 80명을 대변하는 앨리스 고다드 변호사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 침해"라며 병원으로부터 녹화 영상물 5개를 확보했으며 약 100개를 더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샤프 그로스몬트 병원

그는 "요즘같이 인터넷 영상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영상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견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영상들은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고 일부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최소한 한번 이상 영상과 일을 파기했다"고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파일을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수술실 내 의료용 카트에서 마약성 의약품이 사라지는 등의 사건이 있어 절도범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환자들은 분노와 공포, 굴욕, 우울, 무력감 등을 느끼고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바란다고 CNN은 전했다.

sy@news.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후퇴는? 공화당 '비협조' 때문

ACA 폐지 표결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뤄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한 이후에 표결할 것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국민 의무 의료보험제인 '오바마케어'(ACA·적정부담보험법)를 즉각 폐지하겠다고던 입장을 잠정 철회했다. 집권 공화당에서 당장이 법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의 새로운 건강보험법은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덜 비싸고 유용할 것"이라며 "관련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유지하고 하원을 다시 장악하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첫 임기 내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다. 공화당에서도 자신의 폐지를 지지하지 않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미 법무부가 항소심 법원에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해

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건강보험의 당"으로 만들겠다고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치 매킨(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차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통제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배경에 오바마케어가 있었다 점을 고려해 현행 건강보험법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미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pasta@news1.kr

FDA "전자담배가 발작 일으킬 수 있어" 특별 발표

(서울=뉴스1) 권명미 기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가 발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특별발표를 3일 내놨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FDA는 지난해 6월 이후 이 같은 건강에 위협적인 사례들이 전자담배 사용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FDA는 전자담배 경험을 공유하는 곳인 '안전보고 포털'(Safety Reporting Portal)을 통해 정보를 모았고 독성 통제 센터들의 자료를 더 취합해 2010년과 2019년 초 사이에 심장발작을 보고한 사

례가 35건 있었으며 이것이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했다. 발작을 경험한 이들은 주로 청소년 및 젊은 이들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을 삼켰을 때같은 경우 니코틴 중독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왔다. 하지만 FDA는 전자담배의 어떤 것이 발작을 일으키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량의 니코틴을 가스로 들이마신 것이 야기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독성 전문 의사는 "어린이의 경우

피부 및 경구 노출, 청소년은 기체 흡입이 이들 발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작을 야기할 정도로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려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FDA측은 뇌의 갑작스러운 비정상적인 전기적 활동의 결과로 경련을 일으키거나 몸이 굳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발작이 있었다고 말했다.

ungaungae@news1.kr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무역협상 거의 다 왔다 관세 철폐 시기만 남아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관세 철폐 시기가 미중 무역협상의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미중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에서 거의 타협을 보았지만 관세 철폐시기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관세의 일괄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철폐의 시기가 미중 무역협상의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폐지와 관련, 오락가락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돼도 관세는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후에는 "미국이 초기에 부과했던 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만 계속 부과하고 이후에 부과했던 2000억 달러 어치



에 대한 관세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약속이행 강제를 위해 단계적 관세 철폐를 원하지만 중국은 만약 관세를 일괄폐지 하지 않는다면 무역협상안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류허 중국 부총리를 4일 직접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류 부총리를 직접 만나 미중 무역협상 완료를 선언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를 만난 뒤 양국 무역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미중 정상회담 장소와 일자를 확정해 발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sinopark@news1.kr



한국전쟁 때 미군에 코코아 공급한 찰스 산나 별세

스위스미스 창립자...NYT "한국전쟁 승리 도와 산소 함량 줄여 유통기한 크게 연장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수백만 개의 코코아 가루를 공급한 '스위스미스' 창립자 찰스 산나가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산나는 이날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NYT는 산나에 대해 "육군의 위에 수백만개의 인스턴트 코코아를 공급해 한국 전쟁의 승리를 도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산나는 1935년 필라델피아에서 낙농 회사를 경영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1939년 위스콘신-매디슨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1941년 해군으로 입대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산나는 이 때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으로 돌아온 뒤 온 가족과 함께 코코아 개발에 몰두했다. 매디슨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과 수많은 테

스트를 거친 끝에 크림과 설탕, 코코아, 바닐라 최적의 비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기존에 코코아에 사용되던 버터 분유는 산화 현상 때문에 오래되면 썩은 냄새가 났지만, 탈지분유는 그렇지 않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인스턴트 커피를 모방한 이 코코아 믹스는 기존 제품보다 산소 함량을 늘려 유통기한을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늘리는데 성공했다. 군대의 식품 규정을 충족시킨 스위스미스 덕에 군인들도 뜨거운 코코아를 먹을 수 있게 됐다고 NYT는 전했다.

중전 후 제품이 인기를 끌자 산나는 1950년대 후반 '스위스미스' 브랜드를 만들었다. 1963년에는 관련 기술에 특허를 냈고 인스턴트 코코아 시장의 문이 열렸다.

스위스미스 코코아 믹스는 현재 연간 판매량이 5000만 상자에 달하는 인기 상품이다.

angela0204@news.kr

차량공유업체 거품론 솔솔...미국 2위 '리프트' 주가 하락

(시카고=헤럴드경제) = 미국 2위의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주가가 거품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리프트는 주가는 상승 후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다.

시포트 글로벌 증권의 마이클 워드 애널리스트는 2일 리프트 주식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하며 12개월 목표가를 42달러로 책정했다.

워드는 말레니얼이나 그보다 어린 세대들이 자동차 소유를 포기하고 대신 차량공유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맹

신하지 않는 한 현재 리프트의 시장 가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워드는 앞으로도 사람들은 계속 차량 소유하되 편리한 보충수단으로 차량공유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의 기업 가치는 미국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중립' 의견을 제시한 투자자문사 구겐하임도 이 주식 가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려면 너무나 많은 커다란 가정들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나스닥 시장에서 리프트의 주가는 2일 전날보다 0.1% 빠진 68.67달러에 장을 마쳤다.

리프트 주식의 공모가는 72달러였고, 상장 첫날엔 이보다 8.7% 오른 78.29달러로 마감하며 성공적으로 증시에 데뷔했지만 이후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케어아웃 리파이낸스 나의노후?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닥터홍 메드스파안웰니스 MeelIn Skin Health and Wellness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 앤 바디 클리닉
피부 젊음 가까워졌습니다**

- 보톡스, 디스포트
- 하이드로 페이스 MD3 시스템
- 더마 필러(Dermal Fillers) : 레슬린, 주비덤
-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PRP(Platelet Rich Plasma) : 스템셀 스킨 성장인자 치료법
- BTL Exilis Ultra : 레이저 스킨 & 바디케어
- 뉴트리션 테라피 : 비타민, 미네랄 영양 정맥주사 요법
- 체중조절 및 탈모 복원 시술



예약문의: Meeinskinhealthwellness.com, 617.202.6261, 855.208.2806
46 Austin street #301, Newton, MA 02460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주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여야, 4·3보선 다른 해석...개혁 박차vs정부 오만 심판

민주·정의 "노회찬 정신 계승...개혁 전진하란 국민 명령" 한국 "창원서 박빙 국민 경고"...바른미래, 지도부 거취 문제 부상

(서울=뉴스1) 박기호, 김정률, 이형진, 이유연 기자 = 4·3보궐선거 다음 날인 4일 여야 5당 지도부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평가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배한 지역구의 성과를 두고 "개혁하라는 뜻"과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앞서 전날 열린 보궐선거에서 국회 의원 선거구인 창원 성산에선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인 여영국 후보(정의당)가, 통영·고성에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당선됐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창원성산에서 우리 당과 정의당 단일후보의 승리는 노회찬 정신을 계승해 국회 개혁의 박차를 가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고성에선 비록 이기지 못했지만 19대 총선의 두 배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것은 성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통영·고성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창원시민들이야말로 성산대첩의 최종 승리자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지는 창원성산의 자부심을 확인했다"며 단일화 상대였던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희망을 발견해 큰 의미가 있는 결과"라며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보의 성지라는 창원성산에서 사상 유례없는 여야 단일화까지 하고서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것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한국당에게는 새 기회를 주셨다 생각한다"며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호소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은 창원성산선거에만 올인했으나 당의 이재환 후보가 3.57%의 득표로 그치지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의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고 더욱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오늘의 교훈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자양분이 되도록 스스로 더 채찍질 하겠다"고 전했다.

손대표의 거취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지도부도 충분히 의논해 당의 진로에 대해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전주에서 기초의

원 1석을 가져간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부·여당이 오만하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한국당 1석, 정의당 1석, 평화당은 전주 기초의원 1석 당선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다"며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그 순간 진다. 호남에서도 미풍이 불기 시작했다. 국민이 무섭다"고 지적했다.

hjin@news1.kr

수입차로 청와대 돌진 장교, 도주 중 지하철역 화장실서 체포

(서울=뉴스1) 문대현, 윤다정 기자 = 외제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경찰에 붙잡혀 군에 넘겨진 현역 육군 소령이 조사를 받다 도주했지만 3시간여만에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붙잡혔다.

4일 육군에 따르면 오후 1시24분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서 조사받던 육군 모부대 소속 김모 소령이 도주했다.

이후 군과 경찰은 위치를 추적해 체포에 나섰

고 오후 4시28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 화장실에서 붙잡혔다.

육군은 관련 사항을 엄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로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소령 A씨는 지난 3일 밤 10시40분쯤 BMW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 춘추관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시도하다 차량 차단장치(델타)에 가로막혔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5시10분쯤 '회의가 있다'며 청와대 연풍문으로 들어가려다 한차례 제지당했으나, 5시간여 뒤 또다시 춘추관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비대 근무자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청와대 돌진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

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나 정상적인 의사 소통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헌병단에서 조사를 받던 현역 장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군의 기강해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ggod6112@news1.kr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연말 연시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5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확장
오픈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롤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APR. 5th - APR. 11th, 2019

KIMCHI PIZZA CAN PIZZA BE HEALTHY? MAKE YOURS HEALTHIER BY MAKING IT FROM SCRATCH, AND ADDING YOUR OWN TOPPING!

맛과 건강까지 챙긴 홈 메이드 김치피자 레시피를 H마트에서 공개합니다! 취향에 맞게 토핑을 추가해 다양한 맛을 연출해 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유망하고 성공확률이 높은곳에서 새 레스토랑을 열거세요! CONTACT: me@hmart.com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4.99 box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7.99 30lb bag	Pineapple 파인애플 \$1.99 ea.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lb.	Scallion 파 2\$1 bun./for
White Cabbage 화이트 케비지 \$1.29 lb.	Dragon Fruit 드래곤 프룻 \$4.99 lb.	Lotus Root 연근 \$1.99 lb.	Ginger 생강 \$1.49 lb.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All Varieties - 14oz./pkg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eef Eye Round Chunk 장조림용 흉두꺼 \$6.99 lb.	Pork Spare Ribs for BBQ 돼지 갈비 \$3.49 lb.	RIWANG Fish Ball 리왕 피쉬볼 \$4.99 lb.	TONGTONGBAY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홍합살 2\$6 1 lb./pkg. pkg./for
Bone-in Pork Rio Belly Chunk 갈비 삼겹살/수육 \$5.99 lb.	Chicken Wing 닭날개 \$2.49 lb.	TONGTONGBAY Dried Pollock Cut 동통배 절단 명태 코다리 \$5.99 1.5 lbs./pkg.	TONGTONGBAY Oyster from Blue Ocean 동통배 청정생굴 \$3.99 doz./pkg.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부샤부용 냉동 차돌박이 \$8.99 lb.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벌집 삼겹살 \$4.99 lb.	Head-on Shrimp 머리 새우 \$5.99 lb.	Catfish 메기 \$1.99 lb.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AGAWA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23.99 15 lbs.	KWANGCHUN Roasted Seaweed w. Living Bacteria \$12.99 0.14oz. x 230g/box	SAMJIP Frozen Udon 삼립냉동우동 \$2.99 1.55 lbs. x 50g/pkg.	HWOPJUM Dumplings 태오를 손만두 \$4.99 1kg./mixed/Handy - 2.25 lbs.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밥 \$9.99 15 lb.	SAMHAK Rice Cake Sliced 삼학 떡국떡 \$4.99 3lb.	PULMONE Ramyun Noodles w. Spicy Beef Broth 풀목네 떡볶이 떡볶이국수 \$4.99 1.07 lbs. x 4oz. pkg.	MIZKAN Ojigaboo Tasty Soup Base 미즈칸 우동소스 \$3.99 10oz.	NONG HYUP Asian Apricot Tea 농협 차메시 \$19.99 700ml.
---	--	--	--	--	---	--	--	--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2019. 6. 1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우천시 행사는
2019. 6. 29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연기되어 접수지에 한해 Email로 제공되 합니다.

장소 Overpeck County Park Amphitheater (Ridgefield Park, NJ 07650)
접수기간 2019년 4월 12일(금) - 2019년 5월 26일(일)까지 접수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JEJUFARM Green Tangerine Tea 제주자연식품 제주가운 접객차 \$2.99 1.25 lbs.	CHORIPONG Cornish Hen Soup Preparation 초립농이 삼계탕 재료 \$3.99 10oz.	CJ Bibigo Boneless Crispy Chicken Breast Meat CJ 비비고 순살 크리스피 치킨 \$5.99 15oz.	HAID REUM Bal Top Shell 해오름 굴황미 \$5.99 14.3oz.	CALBEE Fruit & Granola 갈비 프루그라 \$6.99 17oz.
ORION Oikarto Snack 오리온 오갈자 2\$5 Original Cream Cheese 4.06oz.	DR. CHUNG'S FOOD Vegemil Soyemil 장식송 베지밀 두유 \$12.99 A/B 150ml. x 24oz./box	HELLO HOME Glass Jar 헬름홈 유리 유리주병 \$13.99 1L/ea.	KOMAX Plastic Tea Bottle 코리아스틱 차 열병 \$10.99 2L/ea.	HELLO Heavy Gauge Aluminum Fry Pan 헬름후라이팬 \$7.99 32cm/ea.

During the advertis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8pm / Fri - Sat: 9am - 10pm

뇌물혐의 김학의 · 윤중천 · 별장 등 10여곳 압수수색...수사 속도

경찰청 포렌식센터도 함께...사용중인 휴대전화도 검찰 "수사외압 관련 압수수색은 없어"...윤중천 출국금지

(서울=뉴스1) 서미선, 손인해, 김민성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재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발족해 이날 1일 정식 출범한 뒤로 3일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 주거지,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도 포함됐다. 이 별장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 본인으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

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에도 일부 인력을 보내 당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3시간여 진행됐다.

이날 수사단의 주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께 종료됐다. 김 전 차관 근무지였던 법무법인 압수수색은 오후 5시10분께 마무리됐다.

수사단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만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해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과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도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자료는 확보하지 않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외압 관련한 것은 일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기록 검토와 함께 발족 일주일도 안돼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수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신속수사'의지를 표해왔다. 여환섭 단장은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첫 브리핑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단은 윤중천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대상은 아니다. 다만 김 전 차관처럼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사위가 수사권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경찰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주요 참고인 등의 출국금지하는 가능하다. 수사단은 이르면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앞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피내사자 신분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된 바 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김학의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김학의 수사, 뇌물부터 정조준 이유는... '부실한 수사권고'

기록 대부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무고 정황 관련 "文대통령 지시 · 실체규명 여론 편승해 수사권고" 지적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과거사위가 뇌물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면서 정작 이에 대한 기록은 빠져 검찰이 수사단서를 찾는 데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서울 광진구 김 전 차관의 주거지와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은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내용 중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이라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광산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종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수사외압 혐의에 관련된 사실을 확보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수사단에 넘긴 기록 대부분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했다고 주장하

는 일부 여성이 과거 윤씨를 상대로 무고한 정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2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특수강간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작 재수사 권고 대상인 뇌물수수와 수사외압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나 과거사위 권고 내용 자체가 막연한데다 뇌물수수 의혹 시점으로부터 이미 10여년의 기간이 흐른만큼 관련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단은 기본적인 관련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큼의 충분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권고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수사단이 출범했지만 과거사위가 권고한 뇌물수수와 수사외압 의혹은 공소시효나 법리 적용의 문제로 혐의 입증에 쉽지 않을 거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보는 시점은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소시효는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15년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10년이다. 2009년 이전 뇌물수수를 처벌하려면 뇌물액이 1억원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져 공소시효(7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의 경우에는 뇌물수수 의혹보다 더 적은 양의 기록이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조사단이 아직 김 전 차

관 사건 관련 조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과거사위가 정부적 판단으로 재수사를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의 수사권고 의뢰 요청으로 재수사를 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조사 기간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son@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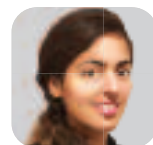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3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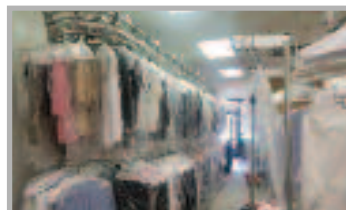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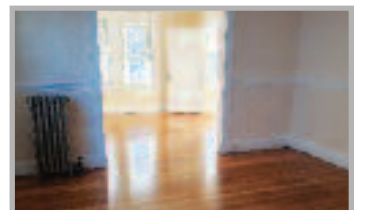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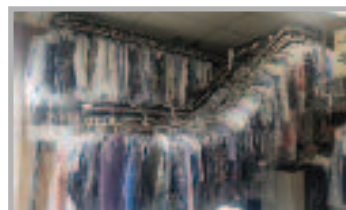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휴람성형외과'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코 성형



용비술 (낮은 코): 콧대+코끝
 낮은 코를 높여주는 수술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로 용비술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양인 코는 대부분 콧대가 낮고 코 볼이 퉁퉁하며, 코끝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 해줄 동양인에게 최적화된 코 성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방법
 낮은 콧대에는 보형물을 사용하고 코끝 윤곽을 모아 준 뒤 비중격 연골 또는 귀 연골을 이용해 코끝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흰코 (비만곡증)
 비만곡증 이라고도 불리는 흰 코는 한쪽으로 휘어져 있어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막힘, 만성두통 등의 코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흰코 수술은 이런 코의 기능과 모양을 모두 교정하는 콧대 수술 방법입니다.

수술 방법
 휘어 있는 코뼈를 절골 하여 중앙으로 위치 시킨 뒤 바깥쪽 코의 연골을 박리하여 본래의 자리로 복원 시켜주는 교정술을 시행 합니다. 흰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코뼈를 절골하지 않고 깎거나 갈아낸 뒤 실리콘으로 전체적인 코 모양과 높이를 잡

아춤으로써 흰 코를 교정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부리코
 매부리코는 코 중간 부위가 튀어나오고 코끝이 푹 떨어져 내려간 코로 강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런 굴곡진 콧등을 매끈한 라인으로 교정하는 콧대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
 콧등의 튀어나온 뼈와 연골 경계 부위를 없애고 매끈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부리코에 튀어 나온 부위를 험프(Hump)라고 하는데 해당 부위를 깎아 내거나 갈아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며, 이때 자가 연골을 사용해 코끝 성형술을 병행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복코
 복코는 피부나 연부 조직이 두터운 코를 지칭하며 코끝의 모양이 둥글고 퍼져 있어 이목구비에 포인트가 없고 세련미가 없어 보이게 됩니다.

수술 방법
 복코는 코끝에 과도하게 발달 된 날개 연골의 일부를 잘라내고, 벌어진 끝 부분을 모아 묶어주어 코끝의 크기를 줄여준 뒤 피하 지방 제거와 연골 이식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코끝 성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 수술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는게 중요하지만 간혹 마음에 들지 않는 코 모양, 높이 또는 구형 구축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코재수술을 찾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재수술의 시기로는 첫 수술로 인해 손상되어 있는 조직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부드러워졌을 때인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제일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코 재수술에는 개인에 따른 원인들이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 수술 방법도 달라지게 되며, 재수술 방법으로는 세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염증이 발생한 경우
 염증으로 인한 재수술은 우선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염증이 가라앉은 이후에 재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할 경우 코가 들러 보이는 구축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 염겨 붙어있는 코 조직의 유착을 풀어주고 비중격 연골을 이용하여 코끝을 내려 줌으로써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2. 보형물이 비취 보이는 경우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형물을 이용하여 코의 윤곽과 개인 니즈에 맞는 디자인을 확인하고 제작한 뒤 보형물을 재 삽입 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3.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다양한 원인들이 세밀하게 파악하고, 코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자가 연골 등을 사용하여 모양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외 단순 마음 변심으로 인해 재수술을 알아 보기도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재수술은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필요로 함으로써 기본이 탄탄한 의사에게 상담과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람 네트워크 성형외과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숙련되고 경험이 충분한 성형외과 의료진으로 수술 전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술 후 전문적인 치료 및 케어를 받을수 있습니다.

“코 성형”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얼굴의 중심을 잡고 있는 코는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얼굴 비율에 맞는 코의 길이, 모양, 길이 등이 조화로워야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코는 입체감과 함께 좌우대칭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정면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나 심미적,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조건 높고 뾰족한 코로 수술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높이와 모양을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 모양에 따라 수술 방법과 시간, 회복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달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힌다리고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女 (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女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女子)라 칭하리라 하니라
 The man (Adam)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 창세기 2:22-23.

자유한국당 나경원(女) 원내대표가 지난 1일 “문재인 정권은 북한 아니면 적폐 밖에 모르는 ‘북적북적 정권’ ” 이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부에서 한·미동맹 간 공조(共助)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는 말을 비판한 것.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규례없는 인사위기에 놓인 문 대통령이 순간을 모면키 위해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인사문제엔 침묵으로 회피한 채 한·미동맹의 빨간 경고 신호를 야당 때문이라 비판하고 있다” 며 “하지만 속도위반 제재완화와 ‘무늬만 비핵화’ 옹호 등으로 한·미동맹이 정면으로 위협받는 것은 집권여당” 이라고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대표적인 한·미동맹의 파괴이므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념이 필요없는 시대(時代)’ 라지만 친노조 좌파정책 실험은 물론 좌파역사관까지 좌파이념에 사로잡혀 ‘우파 이념이 필요없는 시대’ 가 아닌지 묻고 싶다” 며 “김원봉

, 서훈 씨도 역시 좌파 이념시대이며 김원봉, 서훈은 북한으로부터 받는 것이 맞는다” 고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차관직 임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노릇을 했던 최순실(女, 63세)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 전 차관부인이 “사실이 아니다” 고 부인했다.

김 전 차관부인은 2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제가 최순실과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알게 돼 남편의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허위 사실을 발설한 박관천 전 경정과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했다.

박 전경정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밑에서 인사검증 등을 담당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부인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며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라는 곳도 발을 디딘 적이 없다” 고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기자가 “단 한번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아녀자에 불과한 저와 가족을 공격하며 비방하는 완전히 거짓 내용을 보도했다” 고

김 전 차관부인은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사가 많은 후속기사를 보도하며 저와 가족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 며 “가정을 망

가뜨리고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그날 이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고

한편 이 같은 의혹이 나온 직후 구치소에 갇힌 최순실 씨도 변호인을 통해 “나는 김학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은 더더욱 일면식도 없다” 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원 선거구 2곳, 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총 3명(국회의원 후보 1명, 기초의원 후보 2명)의 후보를 냈지만 한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선자를 한명도 내지 못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할 얘기가 없다” 고만 했다.

당내 주도적 의견은 “청와대가 항상 중심에서 있었는데 여차피 선거는 당(黨)이 치러야 한다” 며 “이제 청와대가 좀 뒤로 빠지고 당 중심으로 태세를 재정비해야 한다” 고 했다.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청와대가 현안마다 자꾸 앞장서서 입장을 밝히는 등 노출도가 너무 높다” 며 “당(黨)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패인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는 식의 정신승리 자세로 가다가 내년 총선에서 더 큰 패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보선을 치른 통영은 조선업 위기로

경제침체가 심각한 지역이고 창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대량실업(失業)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어서다.

한 비주류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 내년 총선에서 진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고 문정권(文政權)을 꼬집었다.

서울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청와대가 항상 중심에서 있는데 여차피 선거는 당이 치러야 한다” 며 “이제 청와대가 좀 뒤로 물러나고 당(黨)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고

수도권 지역 다른 의원도 “청와대가 현안마다 자꾸 앞장서서 입장을 밝히는 등 노출도가 너무 높다” 며 “당(黨)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말을 바꾸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의 충고를 멀리한다는 뜻일까?

성경(聖經)은 “주(主)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In the Lord, however, woman is not independent of man, nor is man independent of woman. :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For as woman came from man, so also man is born of woman. But everything comes from God. - 고린도전서 11:11-12.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NEWSTAR
JBL REALTY 뉴스나부동산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480,000</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17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375,000</p>	 <p>NH 대형 물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15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e91e63;">ASKING \$200,000</p>
--	--	--

성폭행 코치 연인관계였다 주장에... 참았던 울음 터트린 신유용씨

(군산=뉴스1) 임종식 기자 =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청석 맨 앞자리에서 재판을 지켜 보던 신유용씨(24·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가해자인 코치 A씨(35)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에도, 피고인 석에 앉아 혐의를 부인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석신청 심리과정에서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16세에 불과한 어린 선수를 성폭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는 이은의 변호사의 발언이 자신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신씨는 4일 오전, 늘 자신의 곁에서 힘을 줬던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군산을 찾았다.

신씨는 24살이던 나이에 스트레스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진단을 받았다. 병원치료를 받기 전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였다. 모두 A씨를 고소한 이후에 발생한 증상이었다.

이런 상태에서도 군산행 기자에 몸을 실은 이유는 단 한 가지 ‘혹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입맞춤 등 성추행은 인정한다” 면서도 “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앞서 입맞춤을 한 뒤에 둘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 면서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석까지 신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특히 부양해야 할 자녀가 3명이나 된다” 면서 “지금 자녀를 돌보는 피고인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신청을 받아주길 바란다” 고 요청했다.

검찰과 이은의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은 16살에 불과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던 피해자를 폭행, 성폭했다” 며 “게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적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석신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신씨와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신씨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가슴이 터 막혔다. 몸에 힘이 빠졌다” 면서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번 호사님의 말이 내 마음을 전달한 것 같



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씨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면서 분노했다

아 울컥했다” 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새벽에 기차를 타면서 ‘혹시 구속 수감되면서 많이 반성했을 수도 있다’ 는 생각을 했다. 조금은 기대를 했었다” 면서 “하지만 여전했다. 뻔뻔함에 화가났다. 답답한 심정이었다” 고 분노했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벌

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내겠다” 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꼭 참석할 예정이다” 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추행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고 분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8일에 개최된다. 신씨와 이 변호사는 이날 재

판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제자였으며, 16세에 불과했다.

A씨는 또 성폭행 범행에 앞선 7월 전지훈련 숙소 모텔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94chung@news1.kr

로이킴, 음란물 유포 혐의 입건 참고인→피의자 신분 전환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정준영 단독방(단체채팅방)' 멤버인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5)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로이킴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킴은 정준영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로이킴이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만큼 서둘러 입국한 뒤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로이킴이 일명 '정준영 단독방' 멤버 중 하나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3일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수 로이킴

한편 로이킴은 지난 2012년 방송된 엠넷 '슈퍼스타K4'에 출연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준영과 동료로 인연을 맺었다. 정준영이 고정 출연한 KBS 2TV

'1박2일'의 절친특집, 웹예능 '꽃미남 브로맨스'에 동반 출연해 남다른 우정을 자랑했다.

ichi@news1.kr



남양유업 창업주인 홍두명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28) 씨

마약투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체포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 압송되는 대로 조사 예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체포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송 중이다.

4일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황씨를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황씨에게 출석을 요

구했지만 황씨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황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아 황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황씨는 분당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금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웹페이지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공정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기독교연맹회	978-407-7554
국제연합기독교연맹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주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대한인정재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보호(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치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0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3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9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5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민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도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정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대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프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일랜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이명원 회계사	508-584-5860
정진수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1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켄넬리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안노라치과/타이닉스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케안노라치과/타이닉스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ne of Doubtless Parish of Boston, MA

판공성사
주일과 평일미사 전후 30분
3/27(수), 4/3(수) 7pm-9pm

성목요일 (4/18)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9)
3pm- 십자가의 길
8pm- 수난예절

성토요일 (4/20)
9pm- 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1)
3pm- 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세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45
office.kcct@gmail.com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당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당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Choosing a quality, affordabl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astern Nazarene College is nationally recognized and among the top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Serving the Quincy community since 1919



Associate's | Bachelor's | Master's
Traditional Undergraduate
Adult and Graduate Studies

Our honors programs have over 90% acceptance rate into medical and law schools.

#1
Money Magazine recognized ENC as the top private college in New England and #24 in the nation for affordability.



EASTERN
NAZARENE COLLEGE

23 East Elm Avenue
Quincy, MA 02170-2999

617-745-3000 • www.enc.edu



ENC is expanding higher education pathways to Asian and immigrant students in partnership with Quincy Asian Resources, Inc. To learn more visit www.qarima.org/enc or call 857-334-9311.

박민영x김재욱 '♥덕질' 로코 '그녀의 사생활'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본격 '덕질' 로코 '그녀의 사생활'은 시청자의 '최애'(제일 사랑하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tvN 새 수목드라마 '그녀의 사생활'(극본 김혜영/연출 홍종찬/원작 누나 팬닷컴)의 제작발표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렸다. 주연배우 박민영, 김재욱, 안보현이 참석했다.

'그녀의 사생활'은 직장에선 완벽한 큐레이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성덕미(박민영 분)가 까칠한 상사 라이언(김재욱 분)과 만나며 벌어지는 본격 덕질 로맨스다.

홍종찬PD는 "아이돌 덕질하는 덕후와, 그 덕후를 덕질하는 두 남자의 본격 덕질 로맨스다"라면서 "덕후나 덕질이 나 역시 생소했고 친숙하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덕후가 현실세계와 멀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이어 "나 역시 언젠가는 덕후였고 덕질을 해봤더라.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덕후라는 것이 삶을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드라마. 사랑과 사람에 대해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드라마"라고 했다.

박민영은 미술관 큐레이터와 프로 아이돌 '덕후'를 넘나들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는 성덕미 역할을 맡는다. '덕후' 신분을 숨기며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 성덕미의 이중생활이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웃음, 설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민영은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이어 또 한 번 로코물에 도전한다. 그는 "전작이 많이 사랑받은 만큼 같은 장르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라면서 "전작을 찍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밝은 작품을 찍으면 사람이 밝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밝아지는구나 싶어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다.

이어 "성공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녀의 사생활'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연기적인 면에서 발전하고 싶은 욕심, 배우로서 욕심이 있어서 연기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전작과 차별점을 두려고 설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정말 다른 캐릭터다. 김비서라는 캐릭터와 성덕미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편하게 갈 수 있었다"라고

했다.

박민영 역시 누군가의 '덕후'였다고 박민영은 "내 세대에는 H.O.T.를 안 좋아하면 안 되는 세대이지 않았나"면서 "H.O.T.를 시작으로 한동안 가수는 끊겼고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에서 성공한 덕후가 되어 드라마를 찍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동안 커피 덕질도 해보고 우리 강아지 덕질도 해봤다. 덕질은 참 아름다운 것 같다. 재미있다.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욱은 갓 '덕질'에 입문한 까칠한 미술관 천재디렉터 라이언 골드로 분한다. 훈훈한 외모와 천재적인 예술적 감각과 안목으로 미술계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과 명성을 지닌 인물이다.

김재욱은 이번 드라마로 처음 로코에 도전한다. 김재욱은 전작 '손 the guest'에 이은 로코 선택에 대해 "전작을 무섭거나 어려워해서 즐기지 못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또 김재욱이라는 배우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밝은 모습도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유로 밝고 편하



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하게 됐다. 나도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구를 해소하는 등 그런 점에서 잘 맞아 떨어져서 선택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내가 안 해봤던 연기를 도전하고 있다.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신다. 같이 하는 박민영 배우에게도 의지하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즐거워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녀의 사생활'은 3일 오후 9시 30분 스페셜 방송을 시작으로, 본방송은 오는 10일 처음 공개된다.

ichi@news1.kr

4월 7일 - 4월 1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자신감이 샘솟는다

● 운수: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 금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고금정보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을 한 순간에 다 허물어트릴 수 있을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0, 13일 길일. 7, 12일 주의.

소띠 |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 운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전혀 조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까. ●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 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룰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9, 10일 길일. 7, 13일 주의.

범띠 |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 운수: 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 금전: 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손조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어게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이 출가분해되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관계도 좋아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7, 12일 길일. 8, 11일 주의.

토끼띠 |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 운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까. ● 금전: 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구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 애정: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땅하고 좋은 상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용띠 |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 운수: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잠시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 금전: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애정: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거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9, 11일 길일. 7, 10일 주의.

뱀띠 | 철저히 확인하고

● 운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클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 금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융통이 될 것입니다. ● 애정: 현재진행형인 상대와 새롭게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3일 길일. 8, 11일 주의.

말띠 |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 운수: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어렵겠습니까. ● 애정: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7, 11일 길일. 9, 12일 주의.

양띠 | 지금은 때가 아니니

● 운수: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 금전: 실재나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으니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8, 12일 길일. 7, 10일 주의.

원숭이띠 |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 운수: 상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의도 들어옵니다. ● 애정: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에 밀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9, 13일 길일. 8, 11일 주의.

닭띠 | 가물에 단비가 내리는

● 운수: 이렇까 저렇까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 금전: 가물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끌어오던 매매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애정: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0, 13일 길일. 9, 12일 주의.

개띠 |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 운수: 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 금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1, 12일 길일. 10, 13일 주의.

돼지띠 | 아주 중요한 기로에

● 운수: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어 적잖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세요. ● 애정: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9, 12일 길일. 8, 11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톤햄, 방 렌트 단기/장기.
주방 사용 가능, 화장실 따로 사용.
T. 978-609-8749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ㅅ. 781-860-0171



'4월 컴백' 방탄소년단 콘셉트 포토, 자신감+설렘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의 콘셉트 포토를 추가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3월 0시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MAP OF THE SOUL : PERSONA의 세 번째 버전과 네 번째 버전의 콘셉트 포토를 함께 선보였다.

이날 공개된 세 번째 버전의 사진은 자신감 넘치면서도 설렘이 묻어나는 방탄소년단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일곱 멤버가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열린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하는 장면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전한다.

함께 공개된 네 번째 버전의 사진은 나른한 눈빛과 표정으로 시선을 모은다. 핑크색 무드의 조명을 활용해 얼굴 선과 눈빛을 강조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1일 새 앨범의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콘셉트 포토는 공개 직후 트위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2일 'MAP OF THE SOUL : PERSONA'를 전 세계 동시 발매한다. 예약 판매 첫날인 지난달 13일부터 아미존 CD & Vinyl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 22일째인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hnh1@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골목식당' 정인선, 새 MC 등장 "조보아가 안심된다고 말해줘"

(서울=뉴스1스타) 황지혜 기자= 배우 정인선이 '골목식당'에 등장, 전임 조보아를 언급하며 관심이 쏠렸다.

정인선은 3일 방송된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MC로 등장했다. 그는 조보아 후임으로 첫 인사를 하며 정인선은 "보아와 동갑 친구다, 특도 주고받는다"며 "보아가 너라서 마음이 된다"고 해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인선은 "난 입맛 까다롭지 않은 편, 얼큰하고 짭조름한 내장류 좋아한다"는 것 없다"고 말하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정인선은 3일 방송된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충남 서산 해미편에서 새 MC로 등장했다.

hwangnom@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Geometry가 왜 기하학일까?

때로 영어 단어를 외는 것은 고역일 경우가 있다. 뭔가 연관이 있어야 암기하기 쉬운데 단어와 뜻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암기가 되지 않는다. '기하학'을 뜻하는 geometry가 딱 그런 경우이다. 단어 어디를 봐도 기하학이란 뜻과 관련되는 것이 없다. geo-는 '땅' 이고 -metry는 '측정' 이니까 굳이 번역한다면 땅 '지' 측량할 '측' 을 써서 '지측학(地測學)' 이 되어야 한다. 게다가 geometry는 '기하학(幾何學)' 이라 옮기면서 geology는 왜 '기질학(幾質學)' 이라 하지 않고 '지질학(地質學)' 이라 하면서도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수학자들이 왜 이걸 궁급해 하지 않는지 필자는 그것이 오히려 더 궁급하다. 수학자들은 영어 어원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

- geometry 幾何學
- geology 地質學
- geography 地理學
- geocentric 地球中心의

사실 이상한 말이지만 아무도 geometry를 '기하학' 이라 옮기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geometry의 발음 즉 /dʒi:əˈmɛtri/에 가장 가까운 표기를 하기 위해 幾何學이란 글자를 빌린 것뿐이다. '기미, 감새'란 뜻의 幾 '어찌, 어떻게' 라는 뜻의 何, '배움'이란 뜻의 學자 중에 땅을 측정

한다는 의미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딱~하니 '기하학' 이라고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뜻도 관련이 없고 발음도 다른데 그냥 그대로 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필자는 이런 영터리 번역 혹은 영터리 학술용어를 볼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다. 물론 한번 굳어진 학술용어는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필자도 알고 있다. geometry는 도형을 다루는 학문 같지만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홍수로 인해 지형이 자주 바뀌자 논과 밭 등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발전시킨 학문이기 때문에 '지측학' 이라 번역했어야 한다.

잘 알려졌듯이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도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하나는 소리만 옮기는 음성전사법이고, 다른 하나는 뜻을 번역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Coca-cola는可口可樂이라 옮기고 /Kǒkǒukǒlè/라 발음한다. 굳이 뜻을 번역하지 않으면 가히 입으로써 즐길 만하다란 것이지만 코카콜라에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하학처럼 이렇게 소리만 옮긴 중국어번역을 우리 조상들이 그대로 '가구가락(可口可樂)' 이라 했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겠는가. 중국인들은 Harvard University를 哈佛大学라 옮기고 /Hāró dàxué/라 발음한다. Harvard는 음만 옮겼고, university는 뜻을 살려 쓴 혼합식 번역이다. 발음이 원어에 비교적 가까운 /Hāró/임을

보자. 이걸 만약 기하학 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Harvard University를 '합발대학' 이라 한다면 정말 터무니없지 않겠는가? 중국어 번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본토 발음을 흉내 내어 '하버드' 라 옮긴 것은 다행이다.

그리스어 geo-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ter-이다. 라틴어의 후손인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뿐 아니라 영어에도 이 어근은 여러 개의 파생어를 만든다. 프랑스어로는 땅을 terre, 바다를 mer라 한다. 필자가 프랑스어를 배웠을 때 들었던 이야기중 하나는 어머니(mère)의 가슴이 마치 바다(mer)처럼 넓고 포근하다고 해서 단어가 같다고 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암기에는 도움이 된다. marine(바다의), submarine(잠수함)과 같은 단어에 mer가 남아있다.

terra rossa는 빨간 흙이고, terra cotta는 구운흙이다. 중학교 시절 미술 선생님은 수업시간마다 테라 코타(terra cotta)란 멋진 말을 쓰시곤 했는데, 역시 terra(흙) cotta(굽다)니까 한마디로 도자기 종류를 말한다. 땅(ter-) 속에(in-) 묻는 것은 inter(매장하다)이고, 우리의 땅(terrestrial) 밖에서(extra-)온 존재는 extraterrestrial(외계인, ET)이다. 모르는(incognita) 땅(terra)은 terra incognita(미지의 땅)이다. 이 밖에도 territory(영토), terrain(지형), inter(매장하다) 등이 있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경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축**

대한민국 안마의자 위 기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판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용돈보다
안마의자!

전신마사지는 기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까지
뇌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바디프렌드 브레인 마사지

BODYFRIEND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브레인 마사지란?**

특허받은 바디프렌드만의 기술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
[뇌파 유도 사운드(바이노럴 비트)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

▲ 특허 제 10-1859928호 :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 ▲ 특허 제 10-1859927호 :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



브레인 마사지 임상 입증
SCI급 논문 게재!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 마사지)가 정신적인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의학 분야의 국제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레인 마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입증

뇌피로 회복속도 8.8 배증가	집중력 지속력 2 배증가	기억력 2.4 배증가
----------------------------	-------------------------	-----------------------



렉스엘 브레인



파라오 S 브레인



파라오 브레인



팬텀블랙 브레인



팬텀 브레인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8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콜로라도 강에 발을 담그고..

3년 전부터 계획했던 Grand Canyon Hiking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10년이 다되도록 함께 산을 오르내리던 산우님 두 부부와 함께 다섯 명이 오붓하게 다녀온 '하이킹 여행'이었다. Grand Canyon National Park에는 한국에서 오신 지인들과 함께 다녀오고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고 그리고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기억으로 세 번 정도를 다녀왔던 기억이다. 몇 번을 다녀와도 다시 보면 자연의 장엄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그 경이로움에 또 놀라고 마는 것이다. 자연이 만들어 낸 거대하고 웅장한 협곡인 바위 숲의 그랜드 캐니언은 20억 년 전 지구의 세월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이번 여행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랜드 캐니언이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2019년 올해가 100주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내의 기념품 가게마다 10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상품들이 즐비하게 마련되어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눈으로만 보려온 것이 아니라 하이킹이 목적인지라 그 외의 것에는 시간을 보낼 여력이 없었다. 최대한 짧은 시간을 어떻게 안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낼 것

인가를 서로 여행 계획을 세우며 많은 준비를 했다. 특별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 해주신 Mr. Kim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랜드 캐니언(Grand Canyon)은 미국 애리조나 주 북부에 있는 고원지대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깎여진 거대한 계곡이다. 콜로라도 강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에 있는 글렌 캐니언댐(Glen Canyon Dam) 밑에 있는 리스페리(Lees Ferry)가 된다. 여기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콜로라도 강은 서쪽으로 446km의 장거리를 흘러서 계곡의 출구가 되는 미드 호로 들어 가는데 이 구간의 양편 계곡을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지역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디언 부족의 땅에 속한 지역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강을 따라 고무보트 배(Raft)를 타고 캐니언을 통과하는 관광을 할 경우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캐니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깎인 계곡의 깊이는 1,600m에 이르고 계곡의 폭은 넓은 곳이 30km에 이른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노력으로 1908년에 그랜드 캐

니언은 내셔널 모뉴먼트(National Monument)로 지정되었고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랜드 캐니언은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10년에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439만 명으로 미국의 서부지역에 있는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우리는 South Kaibob Trail -> Colorad River -> Bright Angel Trail을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 날 이른 새벽 4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아침과 점심을 맥도날드 음식으로 간단하게 하기로 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점심거리로 각자 햄버거 1개와 컵라면 1개를 준비했다. 그리고 물을 넉넉히 챙겨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기다렸다.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마치고 이른 아침 6시에 South Kaibob Trail을 따라 Colorad River로 내려가는 내내 세월을 쌓아 올린 조금씩 다른 빛깔의 수십 억 년 동안 쌓인 지층들과 그 흔적을 보며 연신 감탄을 하며 내려갔다.

그리고 4시간 30분 정도 걸렸을까 드디어 Colorad River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지역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린 관계로 콜로라도 강

'의 물이 뿌연게 흐르고 있었다. 몇 년 전 여행 중에 헬리콥터를 타고 그 웅장함의 협곡을 내려다 본 일이 있었다. 그때는 초록과 푸른빛으로 참으로 아름다웠던 기억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감사이고 감동이었다. 우리는 발을 강물에 담그며 준비해 온 햄버거와 컵라면을 점심으로 챙겨 먹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Bright Angel Trail을 오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취한 채 수십 억 년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태고의 바위 숲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정오의 낮에 오르니 얼마나 덥던지 한 두시간 남짓 올라서야 바위틈 응달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준비한 간식을 챙겨 먹고 물을 마시며 힘겹게 올랐다. 그리고 7시간을 올라서야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우는 황홀경의 일몰을 정상에서 바라볼 때쯤 목표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하이킹이었지만, 그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티끌만큼 작은 피조물인 나를 또 확인하고 온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선교사와 변호사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교회에선 요즈음이 고난주일이다. 곧 부활절이 다가온다.

'The Testament', John Grisham의 소설책이다. 십수년전 구했는데 책꽂이에 얹혀 있었다. 제목을 보고 종교소설인가 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라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책은 법정소설이다. 제목은 무겁고 어려운데, 유언遺言이라 번역할 수도

있겠다. 책을 쓴이는 전직前職변호사이다.

책장은 이미 누렇게 변해있었다. 고서 경지에 이르렀던 거다. 성경도 빛바래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 책 줄거리는 간단한테, 전개가 흥미롭다. 등장인물이다. Nate, 잘 나가던 변호사인데 바쁜 일상생활이 지겨운 사람. Rachel, 선교사이면서 의사. 남미 정글오지에서 세상과 인연

을 끊고 의료선교중이다.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수억만장자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 된다. 의뢰받은 변호사 Nate가 이 여인을 찾아 나선다. 한편, 의뢰받은 변호사가 가관이다. 대형로펌에서 일했는데, 문제적 인물이다. 탈세와 가정문제, 그리고 알콜중독으로 자주 재활기관에 출입하는 중이다. 변호사 면허를 잃을 지경에 이른 거다. 네이트는 어려움끝에 Rachel을 찾기는 찾는다. 하지만, 여인은 상속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다. 유산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거다. 소설이다만, 유산이 무려 110억달러이다.

두사람이 만났을 적 대화이다. 선교사와 변호사는 피차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레이첼(선교사): 하나님께 고백해 본적 있어요?

네이트(변호사):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요, 뭘?

레이첼(선교사): 그래요, 분명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지 않으면 꿈쩍도 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야 하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당신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당신 알콜 중독증세도 없어질 겁니다.

...

한참 뜬을 들이고는,
네이트(변호사): 내 탈세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레이첼(선교사):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려움을 마주할 힘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소설의 결말이 또한 불만하다. 레이첼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다. 유언/유서를 남겼다. 자기에게 남겨진 전 재산으로 선교 Trust Fund를 만들고, 네이트에게 관리를 부탁했다. 흠, 110억 달러라고? 소설속 숫자이다만, 도대체 얼마나 큰 숫자냐? 그걸 계량할 수는 없다. 내 머리가 여간 복잡한게 아니다. 회계사도 동원되어야 할게다.

소설엔 선교사와 의사와 변호사가 나왔다. 세금 문제가 나왔으니, 회계사도 빠질 수 없겠다. 소설 2편이 있다면 말이다. 세금보고 시즌이기도 하다. 세금보고는 마쳐셨는지. 한국엔 전직대통령이 다스인지 디스인지 세금문제에 걸린 모양이다.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 16:15)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치과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 5 미백 [30만원 ~]
- 6 전체틀니 [180만원 ~]
- 7 크라운 [40만원 ~]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 (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샛강역) / 옥스치과(강남역)
 클라인치과 (압구정역) / SKY치과(역삼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키오독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양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기에 나에게 '마인드 콘트롤'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4주에 걸쳐서 '마인드 콘트롤'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실습하는 단기간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그당시에 꽤 비싼 수업료를 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친한 친구가 혼자 강의를 듣기가 싫어서 나에게 강연이설로 유혹해서 나도 같이 등록하게 되었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듯이, 마인드 콘트롤은 나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난 30여년을 같이 걸어왔다. 최근에 유행인 Secret이라는 책도, 양자역학에서의 '상자속의 고양이'라는 이론 물리학설도, 어찌 생각해보면 마인드 콘트롤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다.

인간의 사고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한한 영역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이지 않는 사고의 능력은 정확히 측정된 적이 없다. 아니 측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 세기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를 10%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마인드 콘트롤은 이 사고의 능력을 조금씩 발달, 개발시키는 훈련이다. 그리고 마인드 콘트롤에 의한 긍정의 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소개해 보겠다.

양파를 두개 준비해서 각각 물컵에 뿌리를 담가두자. 양파는 햇빛과 물이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랄 것이다. 이제 한쪽의 양파는 매일 시간나는데로 좋은 감정, 말, 눈빛을 보낸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미운 감정, 나쁜 말을 해 본다. 3주만에 좋은 감정의 양파가 나쁜 감정의 양파보다 3배 이상 빨리, 크게, 싱싱하게 자랄 것이다. 이 실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매번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양파들을 만난다. 집을 팔려는 양파, 집을 사려는 양파, 집을 통해서 투자하려는 양파 등등. 그리고 나의 양파밭에는 항상 좋은 양파들만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양파들에게 좋은 감정,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 존중, 좋은 말만 하려한다. 왜냐하면 양파들이 잘 자라거나, 못 자라거나 양파들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기 때문이다. 양파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내가 그만큼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미물인 애완동물도 자신을 좋아하는

지 싫어하는지를 냄새만으로도 알아낸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상대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히 나의 양파들을 진심으로 존중,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시장은 생각만으로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인드 콘트롤을 통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해답이 보일 것이다. 간절히 주택이 팔리기를 기원한다면, 비록 원하는 가격은 아닐지라도 오퍼가 들어 올 것이다.

그 낮은 오퍼가 현실에서는 최선의 조건일 수 있는 것이다. 간절히 주택을 사려고 기원한다면, 완벽하게 원하던 주택은 아닐지라도 2% 부족한 주택이 나타날 것이다. 바이어의 예산으로는 그 2% 부족한 주택이 최선일 것이다. 온전히 긍정적 생각만으로도 100%를 얻지 못할 수 있는 현실에서, 아주 작은 부정적 생각은 커다란 족쇄가 되고 말 것이다.

마인드 콘트롤은 야구공을 변화구로 던지는 것과 같다. 한번 습득한 기술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잘 던질 수가 없다. 다시

몇번의 노력을 통해야만 예전의 예리한 각도의 변화구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양파를 두개 사야겠다. 그리고 물컵에서 키우는 연습을 해 볼 것이다. 예전의 날카로운 변화구를 다시 던지기 위한 것이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69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한다.

[진흥제가 태자의 종인들을 조사했는데, 미실과 미생의 낭도들이 많았다. 미실의 추행(추행)이 종인들의 입에서 많이 나왔다. 제(제)가 비로소 의심하여 큰 옥사를 일으키려 하자, 미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목 놓아 울며 궁을 나갔다. 공 또한 전군의 위를 사퇴했다. 사도왕후가 간하여 말하기를 “삼주(三柱)의 맹세가 있습니다. 어찌 천한 무리들의 어지러운 말로 총첩(總楫)의 은혜를 빼앗고 죽은 아들의 혼령을 아프게 하려 합니까?” 했다. 진흥제가 이에 불문에 부치라는 조칙을 내렸다. 곧 다시 미실을 생각하고 제(제)가 친히 거동했다. 미실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왕을 붙들고 사죄를 했다. 제(제)가 또한 받아드렸다. 그때 세종공이 지방으로부터 소환되었다. 제(제)가 다시 미실을 전주로 삼고자 했으나, 세종공에게 믿음을 잃을까 염려하여 그만두었다. 미실 또한 세종공의 지성에 감격하고 하종공의 부자와 단란한 즐거움을 가지려 하여 해군(海軍)으로 피하여 가 살았다. 공은 부모를 지극한 효도로 섬겼다. 세종공은 이에 미실과 더불어 공의 장수를 해신에게 빌었다. 그 때 수종전군이 어렸기에 따라가서 해군에 있었다. 제(제)가 수종을 본다는 핑계로 여러 번 불렀으나, 미실은 글을 올려 자기의 죄를 늘어놓고 거절했다.

제(제)가 이에 친히 해군에 거동하여 서로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미실이 감동하고 다시 마음

이 움직여 마침내 제(제)와 더불어...로 돌아갔다. 세종공을 병부우령(兵部右令)으로 삼아 위로했다.]

미실의 가족은 해군에서 살다가 진흥왕의 친히 찾아오는 기회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 미실은 당시 남편 세종과 낳은 하종이 있었으며, 진흥왕을 모시기 전에 동륜태자 사이에서 낳은 애송공주도 있었다(진흥왕은 자신의 딸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진흥왕과 낳은 반야공주, 난야공주, 수종전군이 있었다. 또한 옥종(玉宗)을 임신하고 있었다. 미실의 가족이 왕경으로 오자 진흥왕은 미실의 입궁을 명하였다. 그러나 미실은 임신한 아이를 낳고 입궁하겠다고 청하였지만 진흥왕은 옥종을 마복자로 삼았다. 즉 옥종의 아버지는 세종이지만, 옥종을 임신한 미실은 진흥왕의 승을 입고나서 옥종을 출산하게 되었으니 옥종은 진흥왕의 마복자였다. 마복자는 왕자나 공주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보호를 받았다. 당시 마복자란 왕의 마복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위 계급의 임신한 여성이 상위 계급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마복자였다. 화랑세기에 따르면 왕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 시대에 있었던, 아주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퍼져있던 풍습이었다. 왕을 비롯한 풍월주, 또는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여러명의 마복자를 두어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고, 마복자들은 유력한 후원자를 얻으면서 서로가 보호를 받고 또한 권력을 향유하였다

. 화랑의 풍월주들은 많은 낭도들의 아내로부터 색공을 받았고 또한 많은 마복자들을 신하로 두었다(당시 칭신은 임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진흥왕의 명으로 옥종을 임신한 미실은 입궁하여 왕을 모셨고, 왕후궁 원편에 새로운 궁을 지어 미실의 가족 모두 왕궁에서 살도록 했다. 물론 남편 세종도 함께 입궁하여 살았다. 진흥왕은 점점 노쇠하여졌고 풍질(風疾)에 시달리면서 정사를 보지 못했다. 다만 왕후 사도와 후궁들이인 미실, 보명, 옥리, 월화 등과 향락에만 도취되었다. 결국 정사는 미실이 이모인 사도왕후와 내정을 좌지우지했고, 외정은 세종과 설원, 미생이 마음대로 했다. 설원은 7세 풍월주를 역임했고 미실의 연인이었다. 미생은 미실의 동생이며 10세 풍월주를 지냈다. 결국 그들의 권력은 진흥왕이 죽은 후 576년에도 계속되어 동륜태자의 장자인 백정 대신 진흥왕의 차자인 사륜태자를 진지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리고 579년 진지왕이 '황음무도' 하다는 이유로 폐위하고 백정을 진평왕으로 세웠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 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summer

fenn



WHERE KIDS THRIVE

SUMMER FENN ONLINE REGISTRATION OPEN NOW



Online Registration Open NOW!

For more information; www.summerfenn.org

Summer Fenn is where you'll find kids unplugged, active and outdoors. It's a place where they are warmly welcomed each morning by familiar faces and new friends, and returned home with memories to cherish... A place where every child can try new things, make new connections, and feel valued just as they are. Summer Fenn is where kids thrive.

Weekly Session dates:

- Week 1 (June 24-28)
- Week 2 (July 1-5, we are OPEN July 4th for a 1/2 day, no pm extended day)
- Week 3 (July 8-12)
- Week 4 (July 15-19)
- Week 5 (July 22-26)
- Week 6 (July 29- Aug 2)
- Week 7 (Aug 5-9)
- Week 8 (Aug 12-16, NO pm extended day on Friday)

BASE CAMP

\$665/Week (\$655 Pay By Check Discount)
 Senior Camp (7th-9th Grade, Includes Weekly Field Trip) \$680/Week (\$670 Pay By Check Discount)

SF JUNIOR

\$380/Week (9:30am-1:30pm, Lunch Included) (\$370 Pay By Check Discount)
 Full Day Option \$600/Week (\$590 Pay By Check)

SPECIALTY CAMPS

One-Week Specialty Camps- \$695 (\$685 Pay By Check)
 Two-Week Specialty Camps- \$1390 (\$1375 Pay By Check)
 Three-Week Musical Theatre Camp- \$2,250 (\$2,220 Pay By Check)
 Build Your Own Boat- \$795 (\$785 Pay By Check)
 Two-Week Build Your Own Sailboat- \$1600 (\$1585 Pay By Check)

SPORTS CAMPS

Gaga Ball, All Sports, Full Day Soccer- \$650 (\$640 Pay By Check)
 1/2 Day Soccer Skills Clinic W/NEFC Coaches \$350
 (Add Lunch + Afternoon Electives= \$700)

DAY TRIPPER CAMPS

Day Tripper Adventure- \$750 (\$740 Pay By Check)
 Day Tripper Codebreakers, Or Day Tripper Photo Op- \$725 (\$715 Pay By Check)

EXTENDED DAY

7:30AM-8:45AM - \$80/Week
 4:00PM-6:00PM - \$135/Week
 Both AM And PM- \$190/Week
 Drop-In Hourly Rate- \$17/Hour

SUMMER FENN
www.summerfenn.org

516 Monument St. Concord, MA 01742
 Phone: 978.318.3614, Fax: 978.318.3683, summercamp@fenn.org

보스톤 전망대

왕도 자격이 있어야 금관을 쓸 수 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921년 금관총에서 금관이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금관은 의례 왕이 쓰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함께 출토된 여성용 굵은 귀거리 (태환 이식)가 있어서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발굴 유물도 금귀거리, 금팔찌, 금반지, 금동신발 금 장식류가 7.5kgm 나 되어 상대적으로 무기류를 압도하고 있어 무덤의 주인은 여성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금관에 매다는 장식이 남성용인 가는 귀거리가 발견되어 무덤 주인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많게 되었다. 2014년에 금관총에서 “이사지 왕도” (이시지왕도) 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집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무덤 주인이 누구냐는 논란이 떠오르게 되었다. 윤상덕 중앙 박물관 연구관은 금관총 봉분을 둘러싸고 밖은 호석의 둘레가 45m인데 동상 마립간의 호석은 50m가 넘는다고 하며 금관총은 마립간의 무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또 창, 화살촉, 마구, 갑옷, 등 부장품을 분석한 결과 피장자는 남성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사지 왕은 신라왕이 아닌 마립간이 아니라 6부의 최고위층인 귀족 신분이라는게 그의 주장이었다. 신라에서 왕의 호칭은 왕만 쓰던 것이 아니었다. 왕의 친족들에게도 갈문왕이라는 호칭을 주어 왕의 아버지, 장인, 동생, 여왕의 남편 등에게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 신라 초기에는 2인자 기능을 하고 있었다. 선덕여왕 남편은 음갈문왕 박수월 (朴水月), 또는 차질왕으로 불렸고 원성왕과 왕위 경쟁을 벌인 김주원은 명주 (溟州) 군왕으로 불렸다. 이처럼 금관총의 주인도 왕이 아니라 귀족 출신으로 보여진다.

II) 1924년에 발견된 금령총과 교동금관은 10여세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내용은 이미 전주 칼럼에서 말한 바 있었다.

III) 서봉총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발굴되었다. 남성 고분에서 흔히 보이는 큰 칼이나 관모가 나오지 않고 태환 이식 귀거리를 하고 있어 여자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장품에는 곡옥을 꿰어 만든 목걸이, 금반지, 비취곡옥을 단 가슴 장식, 금팔찌 등을 잠작하면 피장자가 여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부장품 중에 은으로 만든 그릇은 연수원년 태왕신묘 (延壽元年 太王辛卯)라는 명문이 새겨져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든 무덤의 조성 연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구려 장수왕 (413-491)의 년호가 연수라는 점으로 미루어 신묘년은 AD 451년으로 생각된다.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때 장수왕의 은합이 부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신라 눌지왕 재위 년간이었다.

IV) 천마총은 1973년에 발굴 되었다. 21대 소지 마립간 (479-500)이 사망하자 그의 (손이었던 지증마립간이 6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지증왕 (500-514)이 되었고, 76세로 사망하였다. 지증왕 때 지금까지 내려오던 순장 풍습을 폐지했고 이때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했다. 지증왕의 아들 법흥왕 때부터 불교가 공인되고 대형 고분을 만들던 적석목곽분이 사라지고, 호화제품 부장을 금지하면서 더이상 금관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김병모 박사는 순장의 풍습을 중지시킨 지증왕이 천마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마총에는 일절 순장의 흔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V) 황남대총은 대통령에서 제일 큰 무덤으로 쌍분이다. 북분이 왕비의 무덤이고 남분이 왕의 무덤이다. 북분은 은제 허리띠에 부인대 (夫人帶) 라고 쓰인 명문이 있어 왕비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분은 60세 전후의 남자로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 유골과 함께 매장되어 있었다. 발굴된 유물은 금관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은관과 금동관만 출토 되었다. 도대체 금관은 어디로 갔을까?

“요시미츠 쓰네요” 는 그의 저서 “로마 왕국과 신라” 에서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을 실성 마립간으로 보고있다. 그는 미추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며 성골왕족으로 금관을 쓸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성마립간은 성골이 아니라서 금관을 쓸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왕비는 금관을 쓰고 실성은 은관을 쓰고 누워있는 것이다. 실

성이 눌지에게 피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황남대총 같은 대형 무덤을 만들어 주었을까? 요시미츠 쓰네오는 이에 대한 답변은 실성을 먼저 보지 말고 왕비를 먼저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즉, 왕비의 지위가 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시미추의 언급에 반하여 필자는 내물마립간의 손을 들어 주었다. AD 360년 내물마립간 때 두번에 걸쳐 위두라는 신라 사신이 고구려 사신과 함께 전진(前秦) 황제 부견 (苻堅)을 접견했는데 부견이 위두에게 물기를 “해동 (海東)의 형편이 옛과 같지 않다고 하니 무엇을 말함이나?” 고 하거늘 대답하되 이는 마치 중국의 시대 변형, 명호개역과 같은 것이니 지금이 어찌 예와 같으리오 하였다. 이는 당시 석씨 세력이 몰락하고 김씨 쪽으로 급변 시기였고 문화적으로는 적석목곽분, 황금문화, 금관문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고구려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 가야, 왜 세 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던 때로 내물마립간은 격동하는 제반 정세의 중심에서 최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사후에 세운 무덤도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내물, 실성 두 사람은 두명 모두 미추왕의 딸과 결혼했고 두명 모두 성골 왕이 아니었으며 두명 모두 금관을 쓸 자격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황남대총의 주인일까? 눌지 마립간이 실성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죽인 사람을 고분의 주인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물 마립간이 황남대총의 주인이다.

지금까지 금관을 쓸 수 있었던 6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금관총의 주인은 귀족이었고, 금령총과 교동금관의 주인은 어린 아이였다. 서봉총은 성인 여성이 주인이었고, 천마총의 주인은 순장의 흔적이 없는 지증왕으로 김병모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은 왕비로 추정되는데 남분의 주인은 필자의 의견은 내물 마립간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는 금관의 주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21)

천천히 부자 되기

몇 년 전 한 모임(Sun Valley Conference)에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저스(Jeff Bezos)는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

베저스: “당신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로 일반 사람도 크게 부자 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당신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핏: 그 이유는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Because no one wants to get rich slow.)”

10년 전 \$100,000 투자가 \$406,327로 증가했다. 투자 돈이 네(4) 배로 불어난 것이다. 주식 시장이 놀랍게도 300% 이상(The record bull market is 10 years old, Paul Davidson, USA Today, March 8, 2019)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자 대부분은 이러한 혜택을 받

지 못했다.
 지난 10년의 주식시장을 돌아켜 보자

*2009년 3월 실업률 8.7%에서 계속 상승과 집값은 폭락해서 집주인이 손을 털고 나오고 국민총생산량은 거의 밑바닥으로 S&P 500 지수는 676

*2010년 주식시장 급격히 폭락(Flash Crash)
 *2011년 미국 정부 신용등급 하락과 11월 유럽 국가의 부채로 주식시장 하락

*2015년 중국 주식시장 폭락과 오일 가격 하락으로 주식시장 하락

*2016년 6월 영국이 유럽동맹(Brexit)에서 나 온다는 결정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한순간 주식시장 600 폭락

*2016년 12월 미국 은행이자 상승

*2018년 2월 발매기둔(Volmageddon) 상황으로 주식시장 하락

*2018년 4분기에 경제 침체 염려와 이자율 상승으로 주식시장 20% 하락

10년간 주식시장의 결과는 놀랍지만, 주식 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결코 아니다.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등 여러 미디어에서 암울한 소식을 전한다. 투자자의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부 투자자는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상승했기에 투자하지 못했다. 비싼 가격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를 기다린다고 한다. 주식시장이 얼마큼 하락하면 투자한다는 뚜렷한 계획도 물론 없다. 주식시장이 실제로 하락한다고 해도 투자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에 이미 투자한 사람도 겁이 나서 팔고 나오는 상황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아이가 요요를 하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요요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지만, 언덕 위로 올라가기에 요요의 한 낮은 포이트가 결국에는 상승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커다란 그림을 보며 투자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서 투자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년 전 주식시장(S&P 500) 투자는 4배로 불어났다. 1년 혹은 3년 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10년 후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현재 상황이나 단기적인 안목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암울한 소식에 민감해서는 안 된다.

워런 버핏의 충고처럼 천천히 부자 되는 방법을 실행하면 우리가 모두 부자 될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Update

신분변경/연장 신청 Form I-539 개정
 최근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및 연장 신청서 (form I-539) 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지난 3월 11일부터 이러한 개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중요한 개정들입니다.
 1. Form I-539
 우선, 신청서 자체가 update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edition 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반가족들을 추가적으로 Form I-539A 를 작성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2. 지문 Biometrics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이제 I-539 신청에도 지문채취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용(\$85) 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3. 동반가족
 기존의 I-539에서는 동반가족은 별도의 신청양식없이 주신청자의 I-539에 같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동반가족은 각각 별도의 I-539A 를 신청해야 하며 지문료도 각각 별도로 내야 합니다.
 여러가지 개정 내용 중 아래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I-539 의 신청료와 각 신청인에 대한 지문채취료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어머니의 두자녀가 같이 신청할 경우 신청료는 총 \$625 (I-539 신청료: \$370, 각 신청인의 지문채취료: \$85x3=\$255)

-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최근에는 2개의 I-539 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광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I-539와 관광신분을 연장하는 I-539 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문채취는 한번만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I-539 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채취료를 내셔야 합니다.

- I-539의 최근 심사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2 번째 달게는 3번째 I-539 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지문채취를 하셨어도 각각의 I-539에 지문채취료를 내셔야 합니다.

- 지문채취는 일반적으로 스케줄된 시간에 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지문채취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꼭 스케줄된 날짜가 아니라도 그날 사정에 따라 지문채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더 늘어지니 않은 상황에서 지문채취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walk-in 관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 또는 입국허가서 신청자 등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해외방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앞으로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더 늘어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p>보스톤코리아</p> <p>617.254.4654</p> <p>bostonkorean@hotmail.com</p>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전국 프랜차이즈 Subway 보스턴 남쪽, 연매상 \$395,000 매매가격:\$140,000 (\$7,500 - 한 번 내는 이전비 포함), 대학교 근처 훈련, 소유자 20+ 년 경영후 은퇴

보스턴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

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

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풀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피스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프래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렌트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